



에너지전환 정책 홍보 메시지 프레임이 정책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프레임과 해석수준의 상호 적합성 탐색을 중심으로

고태성 성균관대학교 미디어문화융합대학원 강사
강보영 성균관대학교 미디어문화융합대학원 겸임교수
권상희 성균관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과 교수

A Study of the Effects of Energy Transition Policy-Related PR Framings on the Policy Support

In Investigation into Mutual Fit between Framings and Construal Levels*

Go, Tae Seong**

(Adjunct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Media Culture Management, Sungkyunkwan University)

Kang, Bo Young***

(Adjunct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Media Culture Management, Sungkyunkwan University)

Kweon, Sang Hee****

(Professor, Department of Media & Communic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experimental research explores how to formulate PR messages in the ways that will have stronger effect on audience for the energy transition policy, which, in essence, is the phasing out of nuclear power. An experiment was designed to reveal empirically what 'frame' and elements of PR messages for the policy induce the most favorable responses from the participants. Based on the prospect theory, positive/negative framing was set as an independent variable. As suggested by the construal level theory, the message components of how/why and the temporal distance factors of near/far were taken from the properties of the high/low construals and also set as independent variables. In order to measure the effect of messages on audience, benefit perception and policy support for energy transition were set as dependent variables. Participants' political orientation was moderated. A 2x2x2

* This study is based on the doctor's degree thesis of department of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general graduate school, Sungkyunkwan university(이 연구는 제1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 tsgo63@gmail.com

*** smileboyoung@gmail.com

**** skweon@skku.edu, corresponding author

factorial method was adopted for an multi-dimensional examination of the main effects and binary or ternary interactions among the three pairs of the independent variables. The results of the analyses of 1,112 cases show that the main effects of the three independent variables were found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anticipated, positive framing was confirmed to induce more favorable responses than negative framing. The prospect theory was further developed to acknowledge that, as the degree or type of uncertain potential risk and probability of loss lowers, the effect of positive framing becomes stronger, contrary to early theoretical prediction. As revealed by this result, the prospect theory could be made more practical in policy areas. As for the construal level characteristics from the construal level theory, the "how" factor had stronger influence than the "why" factor, while the "near temporal distance" factor had stronger influence than "far temporal distance". Notably, in the binary interactions, the result showed that the strongest interaction effect was found between "how" and "far temporal distance," contrary to the hypothesis that was based on the traditional construal level theory. It could be due to the nature of the energy transition policy. Energy policies lie within the realm of science and technology. By nature,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tend to be future-oriented and place a higher value on the future. In this study, we attempted to explore how PR messages for the energy transition policy could be made more effective with the help of experimental methods. The empir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the theoretical framework for analyzing message effects. By applying the prospective theory and the construal level theory, the positive/negative framing type and construal level theory based on the prospective theory and how / why dimension. The practical level in establishing an effective message composition strategy was verified because the how / why factor and the type of near / far temporal distance encompassed elements other than where in the specific message component 5W1H (underground principle). It is thought that the connection with the energy transition policy is not great because the message component is related to the spatial location, but it can be applied to the differential analysis of the message effect due to spatial variables such as geographical proximity to the nuclear power plant. From the ternary interactions, positive framing, the "how" factor and the "far" temporal distance were found to have the most favorable responses. The hypothesized moderation effect of political orientation was only marginal as the positive relation between more progressive political orientation and higher support for the policy was found to be limited.

Keywords: Energy Transition Policy, Positive / Negative Framing, How / Why Construal Level, Temporal Distance, Policy Support

1. 들어가며

본 연구는 사회적 갈등을 촉발하고 있는 원전 정책의 프레이밍 효과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이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원전을 둘러싼 갈등을 완화해서 에너지 정책의 미래상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조성경(2012)은 정부의 리더십과 산업계의 실천, 그리고 국민의 인식 공유가 에너지믹스 정책의 해답을 찾는 출발점이라고 보았다. 독일의 탈원전 정책에는 40여 년에 걸친 정부·국민·산업계의 합의형성이 주효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윤성원·류재수·김연중, 2017). 한국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절실했지만 에너지전환 정책을 펴나가는 현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나 소통의 능력은 충분한 사회적 설득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이 본 연구가 사회적 합의 모색의 여러 측면 가운데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정부의 정책홍보 메시지에 주목하게 된 배경이다.

원전 정책에 관한 커뮤니케이션 분야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메시지의 수용자 효과 분석보다는 언론 보도 등의 프레이밍에 대한 내용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내용분석에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입지선정 정책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긍정적 프레이밍 전략을, 반대하는 측은 부정적 프레이밍 전략을 주로 활용했음을 밝힌 연구(강민아·장지호, 2007), 원자력 이슈에 대해 보수와 진보 매체는 사안에 따라 긍정 프레이밍과 부정 프레이밍을 서로 상반되게 적용하는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한 연구들(이수진·윤순진, 2013; 이형민·박진우·한동섭, 2015; 한준, 2018)이 포함돼 있다. 또 권태형, 장현주, 그리고 김윤정(2005), 김원용과 이동훈(2005), 박진우, 이형민, 그리고 한동섭(2014), 전영준(2016) 등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고리 원전 블랙아웃 사고, 핵폐기장, 부안 위도 핵폐기물처리장 등과 관련된 언론 보도나 TV 뉴스, 사설 등에 나타난 프레임 유형을 비교·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했고 한국 신문에 나타난 원자력 관련 프레임 변천사에 대한 추적(우희창, 2016)도 시도됐다. 정부나 원자력 유관기관의 정책홍보 메시지를 다룬 연구에서도 내용분석이 주로 활용됐다. 수용자 연구를 진행한 경우도 물론 있으나 대체로 원전 유지에 초점을 맞춘 원자력 수용성(public acceptance, PA) 연구에 치중해왔다(김경신·윤순진, 2010; 김서용·김근식, 2014; 김인숙, 2012; 심준섭, 2015; 황원동, 2013). 원자력 이슈와 관련된 위험커뮤니케이션 차원의 연구에서도 원자력 수용성 문제가 핵심적으로 다루지는 경우가 많았다(김효진·김영욱, 2013; 박천희·홍은영, 2017; 한동섭·김형일, 2011; MacGregor, Slovic, & Malmfors, 1999; Slovic, 1993).

이처럼 기존 선행 연구들이 내용 분석이나 수용자 효과 분석을 통해 대체로 원자력 수용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왔으나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에너지전환 정책이

천명돼 이제는 학문적으로도 원자력 이슈에 내재된 위험의 방향과 함의가 완전히 뒤바뀐 상황을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이러한 학문적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본 연구는 원전 유지가 아닌 탈원전에 방점이 있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대상으로 시의성 있는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을 통해 메시지 내용의 단순 분석보다는 수용자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에너지전환 정책의 시대적 당위성과 현실적 필요성을 홍보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 구성 전략을 모색하는 실증적 목적에 초점을 맞췄다. 이같은 시도는 현실적으로는 정부의 정책적 요구와 맞물려 있는 실용적 측면을 고려한 것인 동시에 학문적으로는 원전유지 정책에 편중된 기존 선행연구들을 보완하는 탐색적이면서도 도전적인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프레이밍과 관련된 이론 가운데서도 이득-공정 / 손실-부정 프레이밍에 따른 메시지 효과의 차이를 분석하는 전망이론(Kahneman & Tversky, 1984), 그리고 메시지가 함축하고 있는 심리적 거리감에 따라 그 메시지를 인지할 때 나타나는 해석의 수준이 달라진다고 보는 해석수준이론(Trope & Liberman, 2003)을 분석의 틀로 삼았다. 두 가지 이론의 활용을 종합하여 긍정 / 부정 프레이밍, ‘어떻게(how)’ 와 ‘왜(why)’ 차원, 가까운 시간적 거리감과 먼 시간적 거리감의 쌍을 각각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독립변인의 변화에 따른 메시지의 수용자 효과는 정책에 따른 이득에 초점을 맞춘 이득인식과 정책에 대한 지지 정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측정했다. 이처럼 두 가지 이론의 접목을 통해 독립변인들 사이의 이원, 삼원 상호작용 효과까지 파악하면 수용자 효과 분석의 외연을 넓힐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이 연구를 바탕으로 보다 다양한 수용자 효과 분석이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다루는 탈원전 중심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정책 방향 선회 방침을 구체화한 이후 정치적 영역에서도 자못 심각한 논란을 불러왔다. 찬반을 둘러싸고 정치권은 진보와 보수 양 진영으로 갈라져 대립했고 일반 시민들도 정치권에서 증폭되고 있는 갈등의 영향을 받으며 자신의 주관적 정치적 성향에 따라 보수는 반대 쪽에, 진보는 찬성 쪽에 가담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같은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별적 반응을 실험에 반영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참조, 수용자의 정치적 성향을 조절 변인으로 설정하고 이 변인이 메시지 효과에 어떠한 변화를 불러오는지를 살펴보았다.

2. 이론적 배경

1) 전망이론과 프레이밍

본 연구에서 정책홍보 메시지의 프레이밍 효과를 실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독립변수로 이득-공정 / 손실-부정 프레이밍을 설정한 것은 전망이론(Prospect theory)을 토대로 하고 있다. 전망이론은 합리성에 근거한 기대효용이론(expected utility theory)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실험을 통해 밝히고 인간은 이득(gain) 영역에서는 확률에 의한 기대 가치에 못미치더라도 확실한 이득을 선택하는 위험 회피(risk averse) 경향을, 손실(loss) 영역에서는 확실한 손실보다 확률에 의한 기대 가치가 작더라도 후자를 택하는 위험 추구(risk seeking) 경향을 보인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때 프레이밍이라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득, 또는 손실에 대한 전망(prospect)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단순한 표상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프레이밍이 작동할 여지를 열어놓았다고 봐야 할 것이다(Kahneman & Tversky, 1979).

티버스키와 카네만(Tversky & Kahneman, 1981)은 “같은 문제가 다른 방식으로 틀지 워질 때 (수용자의) 선호를 변화시킬 수 있다”(p. 453)고 함으로써 전망이론과 프레이밍 이론의 접점을 만들었다. 구체적으로 아시아 질병에 대한 대책의 효과와 관련된 실험에서 효과가 ‘구해 지는 생명의 수’와 ‘희생되는 생명의 수’로 각기 긍정적, 부정적으로 달리 표현될 때 응답자의 선택이 반대로 바뀐다는 것을 입증했다. 그러나 전망이론을 도식적으로 적용하기는 곤란한 측면도 있다. 전망이론은 수학적 확률을 활용하여 사람들이 합리적이지 않은 전망에 따른 선택을 한다는 실험 결과를 보고했지만 본 연구에서처럼 긍정 / 부정 프레이밍에 따른 메시지의 효과 차이를 알아보려 할 때 프레이밍의 강도를 확률적, 정량적으로 정교하게 조정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다. 실험설계에서 프레이밍 강도의 조정은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과제로 생각된다.

본 연구가 긍정 / 부정 프레이밍의 조작과 관련해 방향은 다르더라도 강도를 같게 하여 논리적 등가성을 확보하는 데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본 연구의 프레이밍이 ‘강조 프레이밍’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프레이밍을 크게 두 유형으로 구분할 때 ‘등가(equivalence) 프레이밍’은 논리적으로는 등가이지만 구별되는 단어나 문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설명되며 특정한 현저함이나 핵심 요소, 선택된 특징을 강조하는 것은 ‘강조(emphasis) 프레이밍’에 속한다. 강조 프레이밍의 남발이 개념적 혼란을 야기하고 프레이밍 효과의 독자적 영역을 잠식한다는 비판(Scheufele & Iyengar, 2016)도 있지만 등가 프레이밍은 현실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만큼 강조 프레이밍을 정교화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Leeper & Slothuus, 2018).

카네만과 티버스키(Kahneman & Tversky, 1984)는 전망이론의 발전 과정에서 결과나

사건의 서술(description) 방식을 프레이밍과 동의어로 사용하면서 “단어선택의 변화(a change of wording)”(p. 346)가 프레이밍 효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이들은 전망이론이 대통령 결정 등 정책적 선택에 인용될 수 있음을 제안했으나 출발점은 사람들의 선택이 확률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정량적 접근이었다. 전망이론은 누적 전망이론(cumulative prospect theory)으로 진전되면서 경우의 수가 보다 많은 결과들에 적용되도록 하기 위한 이론적 시도가 이뤄졌다(Tversky & Kahneman, 1992). 누적 전망이론은 손실 개연성의 높고 낮음에 따라 이득 영역에서도 위험 추구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점에서 정책에 내포된 손실, 또는 위험 정도에 따라 프레이밍 효과가 뒤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전망이론의 이같은 전개는 본 연구가 잠재적 위험성을 내포한 원자력 이슈에 있어서 긍정 / 부정 프레이밍의 차별적 효과를 탐색해보려는 시도의 출발점이 되었다.

다수의 선행 연구들은 긍정 / 부정 프레이밍 사이의 메시지 효과의 우열은 메시지가 권장하는 대상, 또는 메시지가 목표로 하는 행동에 담긴 위험의 정도나 유형, 또는 손실 개연성 정도에 따라 바뀐다는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진단 행동인 자궁경부암 테스트와 관련된 실험에서 조기 발견 실패에 따른 위험의 수위를 높게 조작한 메시지에서는 손실 프레이밍이, 덜 위험하게 조작된 메시지에서는 이득 프레이밍이 각각 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ivers, Salovey, Pizarro, Pizarro, & Schneider, 2005). 콘돔 사용을 권장하는 메시지와 콘돔 사용에 관해 파트너와 상의하기를 권유하는 메시지에 대한 연구에서도 보다 낮은 위험이 수반되는 콘돔 사용에서는 이득 프레이밍이, 보다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파트너와의 ‘협상’ 권유에서는 손실 프레이밍이 각각 더 효과적인 것으로 파악됐다(Kiene, Barta, Zelenski, & Cothran, 2005). 136개 실험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메타 분석한 연구도 프레이밍 효과의 우열은 긍정적 / 부정적 측면의 강조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메시지의 권장 대상들이 위험 속에서 질적, 또는 양적으로 변화하는지 여부, 위험한 사건이 복수인지 여부 등의 영향을 받는다는 결론을 내놓았다(Kühberger, 1998).

선행 연구들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을 본 논문에 연결시켜 보면 수용자들은 상대적으로 대척점에 있는 원전 유지 정책에 대해서와는 다르게 에너지전환 정책에 수반되는 위험의 정도나 크기, 손실 개연성의 정도를 보다 낮게 인식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등 미래 에너지에 대해 수용자들이 느끼는 위험 정도는 크게 낮을 것으로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본 연구가 에너지전환 정책에 있어서는 긍정 프레이밍이 오히려 부정 프레이밍보다 더 강한 수용자의 호의적 반응을 불러올 것이라는 가설을 세운 것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고 있다. 에너지전환 정책은 기존의 원전 유지 정책을 대체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책의 위험성 정

도는 원전 유지 정책과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지각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2) 원자력 에너지 이슈에서의 프레이밍

원자력 에너지를 비롯한 과학기술 영역의 이슈를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다룰 때에는 올바른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해야 수용자들이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원자력과 같이 위험이 내재된 특정 대상에 있어서 시간적 여유를 주고 정보를 제공하면 정보에 맞춰 위험/혜택 판단을 바꾼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Finucane, Alhakami, Slovic, & Johnson, 2000) 위험 관리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에서는 수용자들이 믿을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Slovic, 1993). 특히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대참사 이후에는 비상사태 발생 시 위기관리 주체와 대중 매체, 공중 사이의 소통이 갖는 중요성에 초점이 맞춰졌지만(Perko, Van Gorp, Turcanu, Thijssen, & Carle, 2013) 실제 비상사태 때 흩어진 정보원, 보도 초점의 분산, 서로 충돌하는 보도 등 때문에 한 목소리(one-voice)로의 정보제공이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Prezelj et al., 2016). 본 연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정책 지지도 제고를 위한 정책홍보 메시지도 기본적으로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상에서 접근이 가능한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홍보 콘텐츠를 최대한 폭넓게 검색해 연구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TV 뉴스 보도 등 매스 미디어에서는 사회갈등 이슈가 과도하게 단순화돼 보다 심화된 접근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은 일찍이 제기됐다(Cohen et al., 1990). 나노기술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수용자들은 대중 매체의 단서적 메시지에 의존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다(Scheufele & Lewenstein, 2005). 원자력 이슈에서도 정보 전달의 주요 통로인 매스 미디어의 역할에 대한 학문적 탐구가 비증있게 다뤄졌고 그중에서도 프레이밍 효과에 주목하는 연구가 많았다. 미국 스리마일섬에서의 원전 사고 이후의 연구에서는 TV 뉴스, 잡지 기사, 만평, 칼럼 등에 의해 형성되는 담론이 원자력에 대한 여론의 이해에 필수적임이 확인됐다(Gamson & Modigliani, 1989). 과학기술 영역에서의 미디어는 프레이밍을 활용해 복잡한 기술적 문제에 대한 판단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Nisbet & Mooney, 2007). 본 연구는 정책 메시지를 다루지만 기본적으로 프레이밍 효과 이론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에 맥이 닿아 있다.

과학기술 영역의 특정 정책에 대한 메시지의 프레이밍 효과 차이를 분석한 선행 연구들과 본 논문은 출발점을 공유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정부가 새 원전의 건설을 정당화할 때 '안보 프레이밍'의 효과가 더 크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Peoples, 2014). 본 연구와 같이 보다 직접

적으로 정책 지지도 제고를 겨냥한 프레이밍 효과 분석 가운데 영국에서 저탄소 에너지 정책 수용성을 높이려면 공공가치 프레이밍을 활용하라는 제안이 있었다(Butler, Demski, Parkhill, Pidgeon, & Spence, 2015). 미국 셰일오일 관련 연구에서는 시추 기술을 부각시킨 수압 파쇄법 프레이밍보다는 경제 효과를 겨냥한 오일 개발 프레이밍이 더 호의적 반응을 불러오는 것으로 나타났다(Clark et al., 2015). 이처럼 정책 분야에서 프레이밍 전략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긍정 / 부정 프레이밍의 효과를 살펴본 본 연구가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주고 있다.

3) 해석수준이론의 적용

본 연구는 많은 적든 잠재적 위험요인을 안고 있는 정책 분야를 다루면서 그 위험성의 정도에 따른 메시지 프레이밍 효과의 변화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 분석틀로 전망이론을 적용한 것은 수긍할만 하다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전망이론만으로 메시지 효과의 다양한 층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론의 접목을 통한 상호작용 효과의 파악이 필요하다고 보고 메시지 구성요인인 육하원칙(5W1H) 가운데 어떻게(how)와 왜(why) 및 가깝고 먼 시간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이들을 아우를 수 있는 이론적 틀로 해석수준이론(Construal Level Theory, CLT)이 적합하다고 보았다.

(1) 해석수준이론의 개념

해석수준이론을 처음 제시한 트롭과 리버만(Trope & Liberman)은 어떤 대상이나 사건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 거리감(psychological distance)이 사람들의 평가, 예측, 선택, 행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밝혀냈다(Liberman & Trope, 1998; Trope & Liberman, 2003; Trope, Liberman, & Wakslak, 2007). 이는 메시지 구성 때 심리적 거리감 요인을 다르게 적용할 경우, 메시지 효과가 변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해석수준이론에서는 심리적 거리감에 따라 대상이나 사건을 해석하는 '정도(extent)', 또는 '수준(level)'이 달라지며 그 결과, 수용자의 평가적, 행동적 결과들도 변화한다고 한다. 초기 연구에서 하위수준 해석은 가까운 미래의 선택과, 상위수준 해석은 먼 미래의 선택과 각각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Trope & Liberman, 2000, 2003). 상위수준 / 하위수준 해석의 특성들은 <Table 1>에 정리했다.

Table 1. Distinguishing High-Level and Low-Level Construals.

High-Level construals	Low-Level construals
Abstract	Concrete
Simple	Complex
Structured, coherent	Unstructured, incoherent
Decontextualized	Contextualized
Primary, core	Secondary, surface
Superordinate	Subordinate
Goal relevant	Goal irrelevant

From "Temporal construal," by Y. Trope, and N. Liberman, 2003, *Psychological review*, 110(3), p. 405. All rights of the source are protected.

심리적 거리감에 따라 해석수준이 달라지는 것은 사람들이 추상화를 통해 현실의 직접적 경험을 초월, 심리적 거리를 가로지를 수 있기 때문이며(Liberman & Trope, 2008) 심리적 거리감이 멀 때 추상적 상위수준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은 먼 미래의 일에 대해서는 정보가 적기 때문이라고 한다(Liberman, Trope, & Stephan, 2007). 하위 / 상위 해석수준은 목적지향적 행동에 있어서 실현가능성(feasibility) / 바람직성(desirability)과도 각각 연관돼 있으며 먼 미래의 계획은 시간 압박보다는 바람직성에 의해 더 영향을 받는다(Liberman & Trope, 1998).

심리적 거리감의 준거점은 여기(her), 그리고 지금(now)의 나 자신(self)이다. 여가-지금-나에서 더 멀리 옮겨갈수록 해석수준은 더 상위로, 더 추상적으로 이동한다(Liberman et al., 2007; Trope & Liberman, 2010). 초기 연구들에서는 시간적 거리(temporal distance)에 초점을 맞춘 시간해석이론이 부각됐으나(Liberman & Trope, 1998; Trope & Liberman, 2000, 2003) 이후 공간적, 사회적, 가상적 거리에까지 연구가 확장됐다. 사회적 거리는 사회적 맥락에서의 수용자와 대상 사이의 거리이며(Liviatan, Trope, & Liberman, 2008) 공간적 거리는 물리적 거리이고 가상적 거리는 특정 사건의 발생 개연성(확률)에 의해 좌우된다(Fujita, Henderson, Eng, Trope, & Liberman, 2006; Wakslak, Trope, Liberman, & Alony, 2006). 네 개 심리적 거리의 차원들은 서로 인지적으로 연관돼 있으며 해석수준 특성과도 유사한 영향을 주고 받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는 거리감이 가깝거나 멀수록 하위, 또는 상위수준의 해석을 하게 되며 동일한 해석수준 특성을 갖는 거리감 사이에도 추상적 표상의 변화에 따른 상호 연관성이 나타남을 의미한다(Liberman & Trope, 2014; Trope & Liberman, 2010). <Table 2>에는 심리적 거리의 다양한 차원과 실험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심리적 거리의 세부적 예시를 정리하였다.

가깝고 먼 심리적 거리감과 하위 / 상위 해석수준 사이에서 일관된 연관성이 나타난다는 것은 양쪽이 상호작용 관계에 있음을 의미하며 선행연구들이 동일 범주의 해석수준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를 조사하는데 초점을 맞춰 온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다(Liberman & Trope, 2014). 본 연구가 해석수준이론의 심리적 거리감에 근거하여 하위 / 상위 해석수준을 불러일으키는 어떻게(how)와 왜(why) 차원, 가깝고 먼 심리적 거리감으로 메시지를 구성하여 메시지 효과를 파악하는 연구 과제를 설정한 것은 이러한 선행 연구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Table 2. Examples of the Ways in Which Psychological Distance Has Been Varied in Previous Research.

Distance	Operationalization
Time	-Future (e.g., make a decision that would be implemented tomorrow versus a year from now; imagine an event in the near versus the distant future) -Past (e.g., an object that belongs to the present or the past)
Space	-Nearby versus faraway place (e.g., the map represents a path from your office to the nearest cafeteria versus from an office in another city to the nearest cafeteria)
Social distance	-Self versus other (e.g., you describe or decide for yourself versus another person) -Similar versus dissimilar other -Familiar versus unfamiliar other -Ingroup versus outgroup
Hypotheticality	-High versus low probability -Real versus hypothetical (e.g., you play a demo of a game versus the real game)

From "Traversing psychological distance," by N. Liberman, and Y. Trope, 2014,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18(7), p. 365. All rights of the source are protected.

(2) 심리적 거리감과 해석수준이 메시지 효과에 미치는 영향

해석수준이론은 동일한 해석수준 특성을 갖는 요인들이 결합했을 때 보다 강한 상호작용을 한다는 점을 밝혔다. 이를 메시지 효과에 적용하면 메시지에서 가까운 심리적 거리감은 실현가능성과, 먼 심리적 거리감은 바람직성과 각각 결합했을 때 보다 강한 상호작용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 때 먼 심리적 거리감과 바람직성이 결합하여 추상적 목적에 주목하는 것은 정보 부족 때문이다(강보영, 2018; Liberman & Trope, 1998; Trope & Liberman, 2003; Trope et al., 2007). 해석수준이론에서의 실현가능성과 바람직성의 구분은 행동식별이론(Action Identification Theory)이 하위수준 식별은 행동이 '어떻게(how)' 이행되느냐와, 상위수준 식별은 '왜(why)', 또는 '무슨 효과(what effect)를 위해' 이행되느냐와 각각 연관돼 있다고 보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Vallacher & Wegner, 1987). 이를 해석수준이론의 시각에서 보면 실현가능성-가까운 심리적 거리감-어떻게(how) 차원, 그리고 바람직성-먼 심리적 거리

감-왜(why) 차원은 각각 동일한 범주의 메시지 해석수준 특성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우선 많은 선행 연구들이 확인한 바 있는 동일한 해석수준 사이의 보다 강한 상호작용 효과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에서 독립변인으로 설정한 어떻게(how)와 왜(why) 차원, 가깝고 먼 시간적 거리감 어떻게(how)와 가까운 시간 거리감, 왜(why)와 먼 시간적 거리감이 결합했을 때 메시지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독립변인들 사이의 이원 상호작용을 탐색하는데 있어서서 이를 바탕으로 연구가설을 세웠다.

4) 긍정 / 부정 프레이밍과 해석수준이론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프레이밍 이론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다른 이론적 틀이 상정한 메시지 특성들을 접목해 한층 다각적으로 상호작용 효과를 탐색한 연구들이 꾸준히 진행돼 왔다. 이는 이론적 보완 차원이기도 하고 보다 효과적인 메시지 전략 수립을 위한 실증적 차원의 접근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여기에 맥이 닿아 있다. 상호작용을 탐구한 많은 실험 연구들에서 이득-긍정 프레이밍 / 손실-부정 프레이밍의 차별적 효과를 다룬 전망이론이 핵심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은 본 연구의 방향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선행 연구들에서 이론과 이론의 연결 차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전망이론의 프레이밍 효과에 영향을 미쳐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메시지 구성요인으로 설정된 것에는 사용된 언어의 차별성(Shen, 2015), 효능감 소구(Quick & Bates, 2010), 긍정 / 통제 정서(Carnevale, 2008) 등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 범위에 포함된 긍정 / 부정 프레이밍과 가깝고 먼 시간적 거리감, 그리고 구체적 어떻게(how)와 추상적 왜(why) 차원이 갖는 이원, 또는 삼원 상호작용의 효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해선 보다 확장된 형태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가운데 상품 구매의도와 관련된 연구에서 실용적 제품일 때는 긍정적 프레이밍이 '매년'의 먼 미래 조건과 짝을 이뤘을 때 더 강한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내 적합성이 검증됐다. 그러나 쾌락적 제품에서는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아 이 연구에서도 대상에 따라 메시지 효과가 달라지는 양상을 보였다(송인학·박세영, 2009).

해석수준이론에 따른 심리적 거리감과 해석수준 특성의 일치와 관련된 메시지 구성 요소로는 어떻게(how) vs 왜(why), 구체성 vs 추상성, 실현가능성 vs 바람직성 차원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건강 증진, 광고 분야 등에서 이러한 구성 요소들과 긍정 / 부정 프레이밍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에 주목하는 연구가 진행돼 왔다. 본 연구는 이런 흐름을 정책 분야에 적용한 것이다. 선행 연구들 가운데 자궁경부암에 대한 예방백신 접종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가까운 미래에서는 구체적인 메시지 요소가, 먼 미래에서는 추상적인 요소가 각각 짝을 이룰 때 접종 의도를 높였다.

또 가까운 미래에서는 손실 프레이밍이, 먼 미래에서는 이득 프레이밍이 더 강한 설득력을 보였지만 세 변수들 사이의 삼원 상호작용 분석은 시도되지 않았다(김재휘·김태훈·박인희, 2010). 예방백신 접종과 관련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접종 여부 결정 시점이 가까울 때는 구체적 메시지가, 멀 때는 추상적 메시지가 더 효과적이었지만 긍정 / 부정 프레이밍과의 상관 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삼원 상호작용 효과는 발견할 수 없었다(부수현, 2013). 본 연구는 삼원 상호작용 효과까지 검증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연구 결과들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율주행택시 사용의도에 관해 프레이밍과 해석수준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윤승정·김민용(2018)의 연구에서도 눈여겨볼 대목이 있다. 자율주행차도 본 연구에서 다루는 영역인 과학기술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메시지 대상이 비슷한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의 결과를 보면 자율주행택시에 대한 긍정 프레이밍과 상위해석수준의 왜(why) 차원이 짝을 이룬 메시지가 부정 프레이밍과 어떻게(how) 차원을 결합한 메시지보다 더 효과적이었다. 긍정 / 부정 프레이밍과 가깝고 먼 사용 시기 사이의 상호작용 분석에서는 긍정 프레이밍과 먼 미래의 메시지가 사용 의도를 가장 높였다. 과학기술 영역에서 긍정 프레이밍과 먼 시간적 거리감의 상호작용 효과가 우월하다는 하나의 사례가 보고된 것이다(윤승정·김민용, 2018). 이 연구에서는 사용의도를 살펴본 것이고 본 연구의 측정 대상은 정책 지지도이기 때문에 두 연구의 결과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메시지 전략의 대상이 과학기술 영역에 속한다는 공통점이 있더라도 사용의도와 정책 지지도 사이의 차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뤄져야 제대로 된 비교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시간적 거리감 등 메시지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이 메시지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과 작동 방식을 가늠해보는 데에는 두 연구의 비교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선행 연구들에 대한 검토를 종합하면 긍정 / 부정 프레이밍과 해석수준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는 일관되지 않았다. 긍정 프레이밍과 먼 시간적 거리감, 왜(why) 사이에 적합 효과가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기도 했지만 본 연구에서 가설을 세울만큼 충분한 근거를 제공해준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긍정 / 부정 프레이밍과 해석수준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해서는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차원에서 연구문제를 제시하였다.

5) 메시지 효과의 조절 요인

앞서 살펴보았듯이 전망이론과 해석수준이론을 적용해 메시지 효과의 차별성을 살펴본 연구의 결과는 일관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은 메시지 효과와 관련해 수용자의 인식, 태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도 주의를 돌리게 했다. 특히 정치 엘리트와 대중들 각자의 신념 체계

는 서로 다르다는 점이 강조되는 등 메시지 효과에 대한 개인적 성향의 조절 역할은 일찌감치 분석대상이 되었다(Converse, 1964).

수용자 특성을 분석하는 이론적 틀로서 정교화 가능성 모델(elaboration-likelihood model)이 있으나 본 연구에 정교화 가능성 모델을 적용할 경우, 프레이밍과 해석수준의 메시지 효과 분석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 모델에 기반한 관여도, 인지욕구, 사전지식은 통제변인으로 설정했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전환 정책 찬반을 둘러싸고 정치권은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 대립하고 일반 시민들도 정치 성향에 따라 찬반으로 나뉜 현실의 양상을 중시, 정치적 성향을 조절 변인으로 제시했다. 정치적 성향의 조절 역할은 선행 연구들에서도 확인된다. 김대중, 정봉훈, 그리고 장정현(2013)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진보는 원전을 반대하고 보수는 찬성하는 경향이 있었고 신해정, 금희조, 그리고 정성은(2012)도 원자력에 관한 미디어 보도는 이득이나 위험 중 한쪽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보았다. 김효정(2017)은 선택적 노출 이론을 적용한 결과, 정치 성향에 따라 원자력 이슈가 다르게 받아들여졌으며 정치 성향의 조절 효과를 보고했다. 하원석(2019)에 따르면 보수적일수록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에 긍정적이었다. 미 콜럼비아 고등학교 총기난사 사건 이후 총기소지법 관련 의견을 조사한 연구에서도 정치적 성향이 조절 역할을 해 공화당 지지자에게는 프레이밍 효과가 강했으나 민주당 지지자에게는 그 효과가 분명치 않았다(Haider-Markel & Joslyn, 2001).

3.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전망이론을 적용한 메시지 프레이밍 효과와 관련해 긍정 프레이밍이 부정 프레이밍보다 이득인식과 정책 지지를 높이는 데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해석수준이론을 근거로 한 메시지 효과에 대해서는 동일한 해석수준 특성을 갖는 메시지 구성 요소인 어떻게(how) 차원과 가까운 시간적 거리감, 그리고 왜(why) 차원과 먼 시간적 거리감이 각각 쌍을 이뤘을 때 수용자의 보다 강한 호의적 반응을 불러오는 이원 상호작용 효과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조절 변인으로 설정된 정치적 성향과 관련해서는 선행 연구들에 대한 문헌 고찰을 통해 보수일 때는 이득인식과 정책 지지도가 낮게 나타나고 진보일 때는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이상의 3개 가설을 제외하고 세 쌍의 독립변인들이 나타내는 주효과와 이원 및 삼원 상호작용 효과에 대해선 가설을 제시하기에 이론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실험 결과를 예단하여 가설을 세우지 않고 연구문제를 제안하였다.

- 연구기설 1-1, 1-2.**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정책홍보 메시지를 미래지향적인 긍정적 프레이밍으로 제시했을 때가 현실비판적인 부정적 프레이밍으로 제시했을 때 보다 수용자의 이득위험인식(1-1)과 정책 지지도(1-2)가 높게 나타날 것이다.
- 연구문제 2-1, 2-2.**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정책홍보 메시지를 하위해석수준(how)과 상위해석 수준(why)으로 제시했을 때 수용자의 이득위험인식(2-1)과 정책 지지도(2-2)가 다르게 나타나는가?
- 연구문제 3-1, 3-2.**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정책홍보 메시지를 시간적 거리감을 달리해 제시했을 때 수용자의 이득위험인식(3-1)과 정책 지지도(3-2)가 다르게 나타나는가?
- 연구문제 4-1, 4-2.**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정책홍보 메시지의 프레이밍 유형과 어떻게(how) vs 왜(why) 차원의 조합을 서로 달리 제시했을 때 수용자의 이득위험인식(4-1)과 정책 지지도(4-2)가 다르게 나타나는가?
- 연구문제 5-1, 5-2.**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정책홍보 메시지의 프레이밍 유형과 시간적 거리감의 조합을 서로 달리 제시했을 때 수용자의 이득위험인식(5-1)과 정책 지지도(5-2)가 다르게 나타나는가?
- 연구기설 6-1, 6-2.**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정책홍보 메시지에서 해석수준 특성이 일치하는 어떻게(how) 차원과 가까운 시간 거리감, 왜(why) 차원과 먼 시간적 거리감이 조합을 이뤘을 때 수용자의 이득위험인식(6-1)과 정책 지지도(6-2)가 높게 나타날 것이다.
- 연구문제 7-1, 7-2.**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정책홍보 메시지의 프레이밍 유형과 어떻게(how) vs 왜(why) 차원, 시간적 거리감의 삼원 조합을 서로 달리 제시했을 때 수용자의 이득위험인식(7-1)과 정책 지지도(7-2)가 다르게 나타나는가?
- 연구기설 8.** 수용자의 정치적 성향은 에너지전환 정책홍보 메시지의 프레이밍, 어떻게(how) vs 왜(why) 차원, 시간적 거리감과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정치적 성향이 보수일 때 수용자의 이득위험인식과 정책 지지도는 낮게 나타날 것이고 진보일 때 수용자의 이득위험인식과 정책 지지도는 높게 나타날 것이다.

4. 연구방법

1) 실험설계

실험설계와 관련, 독립변인은 모두 3개 쌍으로 전망이론에 따른 긍정 / 부정 프레이밍, 그리고 해석수준이론에 근거한 가깝고 / 먼 시간적 거리감과 구체적 '어떻게(how)' / 추상적 '왜(why)' 차원이다. 실험처치물은 2 × 2 × 2 집단 간 요인 방식에 따라 모두 8개가 만들어져 무작위로 나눠진 8개의 집단에 각각 제시됐다. 구체적 실험처치물은 카드뉴스 형태로 만들어진 8개의 에너지전환 정책홍보 메시지이다. 종속변인은 이 메시지를 읽고 난 뒤 수용자들이 정책에 대해 표시하는 이득위험인식과 정책 지지 정도이다. 조절 변인으로 설정된 정치적 성향을 묻는 항목을 실험설문지에 포함했다. 실험집단은 아래와 같다.

Table 3. Composition of Experiment Group

Framing	How / Why	Temporal distance	Experiment group
positive framing	how (low construal level)	near	Experiment group 1
		far	Experiment group 2
	why (high construal level)	near	Experiment group 3
		far	Experiment group 4
negative framing	how (low construal level)	near	Experiment group 5
		far	Experiment group 6
	why (high construal level)	near	Experiment group 7
		far	Experiment group 8

2) 실험절차

실험은 온라인 실험서베이 방식으로 연구 참여자의 통제가 배제된 의사실험(quasi-experiment) 설계로 진행됐다. 실험은 대행업체인 '마크로밀 엠브레인'에 의뢰해 성별, 연령, 학력, 평균수입, 직업, 거주지역 등의 항목에서 균형있게 표집된 20대에서 50대 사이의 성인남녀 1,159명을 대상으로 진행돼 1,112명의 응답 내용이 최종 분석에 포함됐다. 실험 대상자들에게는 독립변인 사이의 조합에 따라 8개로 조작된 카드뉴스 형식의 에너지전환 정책홍보 메시지를 링크 형식으로 제시했다. 응답은 실험처치물과 함께 제시된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수집됐다. 대행업체는 카드뉴스를 노출하는 시간과 대상자의 성실도를 통제했다.

5. 연구 주요 변인 및 처치물

1) 독립변인: 실험처치물 설계

독립변인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세워 각 독립변인에 따른 에너지전환 정책홍보 메시지(실험처치물 예시, 부록에 수록)를 제작하였다. 정책홍보 메시지는 전망이론과 해석수준이론의 근거에 따라 긍정 / 부정 메시지 프레이밍, 어떻게(how) / 왜(why) 차원, 가깝고 먼 심리적 거리감이 만들어내는 경우의 수인 모두 8개로 조작됐다. 전체적인 틀에 해당하는 긍정 / 부정 프레이밍을 실험처치물의 도입부에 배치했다.

각 독립변인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긍정 프레이밍은 정책을 채택했을 경우의 이득으로 안전하고 깨끗함, 친환경 등을 앞세웠고 청정에너지의 미래 희망을 언급하면서 정책의 당위성을 미래지향적인 긍정적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부정 프레이밍은 정책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의 손실로 위험성, 반환경, 원전사고의 치명성 등을 강조하고 탈원전 행동계획을 예시했다. 또 메시지에 ‘참혹’, ‘백지화’ 등의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정책 수정의 이유를 현실비판적인 부정적 관점으로 표현하였다.

Table 4. Policy PR Message Operational Definition

Framing	Definition
positive framing	Emphasis on the benefits of energy transition policy, such as safety priorities, environmental importance, and justification for the times, suggesting the possibility of future clean energy such as renewable energy
negative framing	Potential and risk of nuclear accidents, stress on loss of non-energy transition policy such as anti-environment of nuclear power plants, including sequential nuclear-exit plans, etc.

독립변인 가운데 어떻게(how) / 왜(why) 차원은 해석수준이론에 입각한 것으로 어떻게(how)는 하위해석수준을, 왜(why)는 상위해석수준을 각각 촉발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조작하였다. 어떻게(how) 차원은 원전의 가동중지 계획, 청정에너지 산업의 육성 등 탈원전을 포함한 에너지전환 정책의 구체적 방법 및 실행가능성(feasibility)에 초점을 맞췄다. 왜(why) 차원은 정책의 윤리·환경·지역적 가치, 지속가능성 확보 및 국민의 안전·건강 보호 등 추상적인 목적이나 미래에의 바람직성(desirability)을 중시했다.

각 정책홍보 메시지는 시간적 거리감에 따라 나누어져 정책의 추진 및 목표 도달 시점을 가깝거나 멀게 느끼도록 조작됐다. 가까운 시간적 거리감을 불러오기 위해 원전의 즉각적인 가동중

지 및 조기폐쇄 계획, 조기 탈원전 필요성 등으로 메시지를 구성했고 먼 시간적 거리감과 관련해서는 ‘모든 원전 가동중단 2075년 이후’, ‘수십 년 후 원전 수명종료’ 등의 내용을 메시지에 포함했다.

실험처치물의 메시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19일 ‘원전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탈원전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된 이후의 언론매체 기사·칼럼·사설, 정부 및 관계 기관의 정책홍보 자료, 전문가 의견 등을 검색한 뒤 정책을 찬성, 지지하는 논지를 재구성해 만들었다.

2) 종속변인의 측정

본 연구에서 종속변인으로서 측정된 메시지 효과는 정책 내용에 대한 이득위험인식 및 지지 태도이다.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일반적 정의(定義)에 따르면 “정책 지지는 정책도입에 관련된 개인의 감정적 반응으로, 정책수용에 대한 호의적 행동의도”(10-11쪽)라고 한다(박정훈·신정희, 2010).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정의를 바탕으로 하고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정책 지지도를 세 개의 설문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 지지도에 앞서 메시지에 노출된 이후의 이득인식을 별도의 종속변인으로 분석함으로써 메시지 효과를 보다 현실적이고 입체적인 토대 위에서 검토했다. 원전 유지 정책이 아니라 에너지전환 정책에 집중하고 있는 본 연구는 새 정책이 가져다줄 이득에 대한 인식을 측정했다. 이득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은 신해정 등(2012)의 연구 등을 참조, 실험처치물에 제시된 에너지전환 정책홍보 메시지를 재구성해 안전과 환경상의 이득인식을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종속변인의 조작적 정의는 <Table 5>로 제시하였다.

Table 5. Operational Definition of 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Definition
policy benefit perception	perception about the extent to which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would make benefits on environment and safety
policy support attitude	individual emotional response to the policy contained in the message, being accompanied with an intention to act in favor of the policy

3) 조절 변인의 측정

조절 변인으로 상정된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강연곤(2018), 김대중 등(2013), 김효정(2017), 엄현식(2018), 이영화(2010), 이현지와 정일권(2012), 최영재(2018), 하원석

(2019) 등의 연구를 참조하여 “귀하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정치적 성향이 어느 쪽에 가깝다고 여
기십니까?”라는 질문에 1은 가장 보수, 7은 가장 진보 사이의 7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답변
하게 하였다. 분석을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상대적인 개념인 보수와 진보 성향 사이의 균형을 고
려해야 한다고 보고 1~4점은 보수 집단으로, 5~7점은 진보 집단으로 나누었다.

4) 통제변인의 측정

본 연구는 프레이밍과 해석수준의 조작이 메시지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
췄다. 따라서 조절 변인으로 설정한 정치적 성향 외에 수용자 기본 성향 관련 요인은 통제할 필
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이 같은 수용자 요인으로 상황적 관여, 인지육
구, 그리고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사전지식 등 세 개의 변인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6. 연구 결과

1) 실험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조사 데이터는 데이터의 편의 표집을 막기 위해 대행업체인 ‘마크로밀 엠브레인’에 의뢰,
2019년 8월 29일부터 2019년 9월 7일까지 온라인 실험조사 방식으로 수집되었다. 최종분석에
포함된 1,112명 실험참여자의 성별은 남성 567명(51.0%)과 여성 545명(49.0)으로 남녀가 거
의 비슷했다. 연령대는 20대 245명(22.0%), 30대 256명(23.0%), 40대 303명(27.2%), 50
대 308명(27.7%)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학력은 중학교 졸업 이하가 4명(0.4%), 고
등학교 졸업이 169명(15.2%), 대학교 재학이 99명(8.9%), 대학교 졸업 이상이 723명
(65.0%), 대학원 이상 117명(10.5%)이었다.

2) 처치물 조작 점검 및 조작된 변인의 검증

본 연구에서 제시된 실험처치물의 조작점검을 위해 인지된 프레이밍, 인지된 해석수준, 인지된
시간적 거리감에 대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모든 결과들은 $p < .001$ 범위 내에서 유
의미하였다. 실험처치물에 대한 조작점검 결과는 <Table 6>에 제시하였다.

Table 6. Experimental Treatment Manipulation Check Independent Sample t - Test Results

Division	Group	n	Average	Standard Deviation	t
Perceived framing	Positive	556	4.95	2.11	-4.955 ***
	Negative	556	5.57	2.11	
Perceived construal level	Low-construal level (how)	553	6.26	1.75	-7.261 ***
	High-construal level (why)	559	7.05	1.86	
Perceived Temporal distance	Near	564	5.58	2.15	-5.299 ***
	Far	548	6.27	2.21	

*** $p < .001$.

3) 종속변인과 통제변인의 요인분석 및 신뢰성 검증

종속변인 및 통제변인에 대한 측정 도구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α) 값으로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종속변인인 이득위험인식에 대한 측정 문항의 크론바흐 알파값은 .948, 정책지지도에 대한 측정 문항의 크론바흐 알파값은 .820로 나타나 신뢰도가 매우 높았다.

통제변인인 인지욕구, 사전지식, 상황적 관여도의 크론바흐 알파값 각각 .905, .943, .912로 문항간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욕구에 대한 설문 문항 가운데 하나만이 제거할 경우 크론바흐 알파값이 높아져서 경미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전체 크론바흐 알파값이 .905로 통상 기준인 .6을 훨씬 초과했다.

종속변인과 통제변인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는 부록 III에 <표 1>, <표 2>, <표 3>, <표 4>로 첨부하였다.

4) 연구문제에 대한 연구 결과

(1) 통제변인의 이득인식, 정책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 종속변인에 대한 영향력이 예상되나 실험적 처치를 통해서 통제 불가능하다고 보고 평소 성향(인지욕구, 사전지식, 상황적 관여도를 공변인으로 설정했다.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통제된 공변인이 통제변인이며 통제를 해야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순수한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공변인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변량 공분산분석(MANCOVA)을 실시한 결과, 세 공변인 모두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공변인의 집단 간 차이를 보기 위해 조정평균(adjusted means)을 산출해 분석했으며 분석 결과는 <Table 7>에 정리했다.

Table 7. Effect of Control Variable on Benefit Perception, Policy support

Control variable	Dependent variable	Wilks' Lambda	F	Eta ²	Observation power
Usual tendency	benefit perception	1.000	.170	.000	.070
	policy support	F = .244	.111	.000	.063
Prior knowledge	benefit perception	0.999	.407	.000	.098
	policy support	F = .533	.213	.000	.075
Contextual involvement	benefit perception	0.996	4.542	.004	.567
	policy support	F = 2.331	1.514	.001	.233

(2) 연구모형에 대한 결과 분석

본 논문의 연구모형은 메시지의 프레이밍 유형, 해석수준 유형, 시간적 거리감이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이득위험인식, 정책 지지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서 다변량 공분산분석(MANCOVA)을 시행하였다. <Table 8>에는 독립변인인 프레이밍 유형, 해석수준 유형, 시간적 거리감이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이득위험인식, 정책 지지도에 미치는 주효과, 이원 및 삼원 상호작용 효과와 관련된 영향력 검증 결과를 담았다.

Table 8. Verification of Influence on Benefit Perception, Policy Support by Variable Type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Wilks' Lambda	F	Eta ²	Observation power
Framing (A)	benefit perception	0.740	138.324***	.112	1.000
	policy support	F = 193.283***	371.759***	.252	1.000
Construal level (B)	benefit perception	0.855	97.523***	.081	1.000
	policy support	F = 93.543***	163.454***	.129	1.000
Temporal distance (C)	benefit perception	0.913	70.232***	.060	1.000
	policy support	F = 52.140***	78.582***	.067	1.000
(A) * (B)	benefit perception	0.927	30.471***	.027	1.000
	policy support	F = 43.576***	84.097***	.071	1.000
(A) * (C)	benefit perception	0.922	53.168***	.046	1.000
	policy support	F = 46.365***	77.599***	.066	1.000
(B) * (C)	benefit perception	0.882	114.210***	.094	1.000
	policy support	F = 73.927***	96.477***	.081	1.000
(A) * (B) * (C)	benefit perception	0.928	68.288***	.058	1.000
	policy support	F = 42.686***	52.961***	.046	1.000

*** $p < .001$.

다변량 공분산분석을 시행한 결과에서 다변량 통계값으로 분석된 윌크스 람다값(Wilk's Lambda)에 따르면 메시지의 프레이밍 유형($F(1, 1101) = 193.283, p < .001$), 해석수준 유

형($F(1, 1101) = 93.543, p < .001$), 시간적 거리감($F(1, 1101) = 52.140, p < .001$)의 주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상호작용 효과에서는 프레이밍 유형과 해석수준 유형의 상호작용($F(1, 1101) = 43.576, p < .001$), 프레이밍 유형과 시간적 거리감의 상호작용($F(1, 1101) = 46.365, p < .001$), 해석수준 유형과 시간적 거리감의 상호작용($F(1, 1101) = 73.927, p < .001$)의 효과가 유의미했다. 프레이밍 유형, 해석수준 유형, 시간적 거리감 사이의 삼원 상호작용($F(1, 1101) = 42.686, p < .001$) 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인 선형조합에 대한 독립변인의 설명력을 부분에타제곱 값과 관측 검정력으로 파악했다. 그 결과, 부분 에타제곱으로 본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나 관측 검정력으로 봤을 때 효과의 크기가 수용할만한 정도인 .6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구체적 분석과 설명을 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된 변인들을 중심으로 개체간 효과 검정을 시행하고 표준편차를 파악하였다.

(3) 연구문제의 검증 결과

가.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정책홍보 메시지의 프레이밍이 수용자의 이득위험인식과 정책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가설 1-1, 1-2〉에 대한 검증 결과

연구가설 1-1과 1-2는 정책홍보 메시지를 긍정적 프레이밍으로 제시했을 때 부정적 프레이밍으로 제시했을 때보다 정책에 대한 수용자의 이득위험인식과 정책 지지도가 높게 나타나는가를 조사하는 것이다. 〈Table 8〉에 제시된 대로 프레이밍 유형이 이득위험인식($F(1, 1101) = 138.324, p < .001$), 정책 지지도($F(1, 1101) = 371.759, p < .001$)에 미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해 실험집단간 차이가 있음을 보여줬다.

〈Table 9〉에서는 긍정 프레이밍과 부정 프레이밍에 따른 이득위험인식, 정책 지지도의 차이를 보다 분명하게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했다.

〈Table 9〉에 따르면 긍정 프레이밍($M = 5.34, SD = 1.05$)에 노출됐을 때가 부정 프레이밍($M = 4.47, SD = 1.78$)에 노출됐을 때에 비해 수용자의 이득위험인식이 높았으며 평균 차이는 $0.87(p < .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해 연구가설 1-1은 지지되었다. 또 긍정 프레이밍 유형($M = 5.32, SD = 0.92$)에 노출됐을 때가 부정 프레이밍 유형($M = 4.07, SD = 1.64$)에 노출됐을 때에 비해 수용자의 정책 지지도가 높았으며 평균차이는 $1.25(p < .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연구가설 1-2도 지지되었다.

Table 9.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Benefit Perception, Policy Support according to Framing

Dependent variable	Framing	
	positive	negative
benefit perception	$n = 556 / 5.34 (1.05)$	$n = 556 / 4.47 (1.78)$
policy support	$n = 556 / 5.32 (0.92)$	$n = 556 / 4.07 (1.64)$

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정책홍보 메시지의 해석수준 유형이 수용자의 이득위험인식과 정책지지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2-1, 2-2>에 대한 검증 결과

연구문제 2-1과 2-2를 통해 정책홍보 메시지를 하위해석수준인 어떻게(how) 유형과 상위해석수준인 왜(why) 유형으로 설정했을 때 정책에 대한 수용자의 이득위험인식과 정책지지도가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검증했다. <Table 8>에 정리된 대로 해석수준 유형이 이득위험인식($F(1, 1101) = 97.523, p < .001$), 정책지지도($F(1, 1101) = 163.454, p < .001$)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해 실험집단간 차이가 있음을 보여줬다.

<Table 10>에는 메시지의 how와 why 유형에 따른 이득인식, 정책지지도의 차이를 보다 분명하게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정리했다.

Table 10.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Benefit Perception, Policy Support according to Construal Level

Dependent variable	Construal level	
	how	why
benefit perception	$n = 553 / 5.28 (1.16)$	$n = 559 / 4.54 (1.74)$
policy support	$n = 553 / 5.11 (1.18)$	$n = 559 / 4.29 (1.61)$

<Table 10>에 따르면 연구문제 2-1과 관련하여 how 유형($M = 5.28, SD = 1.16$)을 제시했을 때가 why 유형($M = 4.54, SD = 1.74$)을 제시했을 때에 비해 수용자의 이득위험인식이 높았으며 평균차이는 $0.74(p < .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연구문제 2-2에 관련하여도 how 유형($M = 5.11, SD = 1.18$)에 노출됐을 때가 why 유형($M = 4.29, SD = 1.61$)에 노출됐을 때에 비해 수용자의 정책 지지도가 높았으며 평균차이는 $0.82(p < .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다.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정책홍보 메시지의 시간적 거리감이 수용자의 이득위험인식과 정책지지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3-1, 3-2>에 대한 검증 결과

연구문제 3-1과 3-2는 정책홍보 메시지를 가까운 시간적 거리감과 먼 시간적 거리감을 느끼도록

제시했을 때 정책에 대한 수용자의 이득위험인식과 정책지지도가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Table 8>를 보면 메시지의 시간적 거리감이 이득위험인식($F(1, 1101) = 70.232, p < .001$), 정책지지도($F(1, 1101) = 78.582, p < .001$)에 미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해 실험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1>에서는 가까운 시간적 거리감과 먼 시간적 거리감에 따른 이득위험인식, 정책지지도의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했다.

<Table 11>에 따르면 연구문제 3-1에서는 가까운 시간적 거리감($M = 5.22, SD = 1.24$)을 느끼도록 했을 때가 먼 시간적 거리감($M = 4.59, SD = 1.72$)을 느끼도록 했을 때에 비해 수용자의 이득위험인식이 높았으며 평균차이는 $0.63(p < .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연구문제 3-2에 관련하여서도 가까운 시간적 거리감($M = 4.99, SD = 1.17$)을 느끼도록 했을 때가 먼 시간적 거리감($M = 4.39, SD = 1.67$)을 느끼도록 했을 때에 비해 수용자의 정책 지지도가 높았으며 평균차이는 $0.60(p < .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Table 11.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Benefit Perception, Policy Support according to Temporal Distance

Dependent variable	Temporal distance	
	near	far
benefit perception	$n = 564 / 5.22 (1.24)$	$n = 548 / 4.59 (1.72)$
policy support	$n = 564 / 4.99 (1.17)$	$n = 548 / 4.39 (1.67)$

라.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정책홍보 메시지의 프레이밍과 해석수준 유형이 수용자의 이득위험인식과 정책지지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4-1, 4-2>에 대한 검증 결과

연구문제 4-1, 4-2를 통해서는 정책홍보 메시지를 프레이밍과 해석수준 유형 간 조합을 서로 달리해 제시했을 때 정책에 대한 수용자의 이득위험인식과 정책지지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조사하였다. 이는 곧 긍정 프레이밍 / 부정 프레이밍과 하위해석수준(how) / 상위해석수준(why) 사이의 상호작용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려는 것이다. <Table 8>를 보면 프레이밍과 해석수준 유형 사이의 상호작용이 이득위험인식($F(1, 1101) = 30.471, p < .001$), 정책지지도($F(1, 1101) = 84.097, p < .001$)에 미치는 효과가 모두 유의미했다. 그 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Table 12>에 평균과 표준편차를 정리했다.

연구문제 4-1을 검토하면 긍정 프레이밍과 하위해석수준(how) 유형($M = 5.51, SD = 0.95$)에 노출된 실험참여자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정책에 대해 높은 이득인식을 보였다. 앞서 분석한 독립변인들의 주효과를 감안하면 예상 가능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이 두 변인 가

운데 어느 쪽의 메시지 효과가 더 큰지를 파악하기 위해 일변량 공분산분석으로 단순 주효과(simple main effect) 검정을 보완적으로 시행하였다.

그 결과를 프레이밍 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긍정 프레이밍($F(1, 1105) = 7.279, p < .05$)과 부정 프레이밍($F(1, 1105) = 93.862, p < .001$)에 미치는 해석수준의 영향력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평균 차이를 함께 살펴보면 긍정 프레이밍이 제시됐을 때에는 상위해석수준(why)보다는 하위해석수준(how)의 메시지에 노출되도록 하는 것이 이득인식을 높이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이 확인된다. 메시지의 해석수준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에서도 하위해석수준(how) 유형($F(1, 1105) = 15.459, p < .001$)과 상위해석수준(why) 유형($F(1, 1105) = 120.398, p < .001$)에 미치는 프레이밍의 효과는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상호작용 효과와 관련해 긍정 프레이밍 \times how, 긍정 프레이밍 \times why의 조합이 각각 평균의 상위 1, 2위를 점한 것으로 보아 긍정 프레이밍이 상대적으로 크게 기여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Table 12.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Benefit Perception, Policy Support according to Framing and Construal Level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Construal level		Sum	N
			how	why		
Benefit perception	Framing	positive	$n = 273$ 5.51 (0.95)	$n = 283$ 5.19 (1.12)	5.34 (1.05)	556
		negative	$n = 280$ 5.05 (1.30)	$n = 276$ 3.89 (2.00)	4.47 (1.78)	556
		Sum	5.28 (1.16)	4.54 (1.74)	4.91 (1.53)	1112
Policy support	Framing	positive	$n = 273$ 5.44 (0.83)	$n = 283$ 5.21 (0.98)	5.32 (0.900)	556
		negative	$n = 280$ 4.78 (1.36)	$n = 276$ 3.34 (1.58)	4.07 (1.64)	556
		Sum	5.11 (1.18)	4.29 (1.61)	4.69 (1.47)	1112

연구문제 4-2를 살펴보면 긍정 프레이밍과 하위해석수준(how) 유형($M = 5.44, SD = 0.83$)을 제시했을 때의 실험참여자 집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정책 지지도를 나타냈다. 이 같은 결과도 예상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도 일변량 공분산분석으로 단순 주효과(simple main effect) 검정을 보완적으로 시행해 어느 변인의 메시지 효과가 더 큰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프레이밍 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긍정 프레이밍($F(1, 1105) = 4.986, p < .05$)과 부정 프레이밍($F(1, 1105) = 191.313, p < .001$)에 미치는 해석수준의 영향력 차이는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평균 차이를 함께 고려했을 때 긍정 프레이밍과 하위해석수준

(why)의 메시지에 동시에 노출되는 것이 정책 지지도를 높이는데 상대적으로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이 확인됐다. 또 해석수준 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에서도 하위해석수준(how) 유형($F(1, 1105) = 39.862, p < .001$)과 상위해석수준(why) 유형($F(1, 1105) = 323.736, p < .001$)에 미치는 프레이밍의 효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전체적인 정책 지지도에 있어서도 상호작용 효과와 관련해 긍정 프레이밍 \times how, 긍정 프레이밍 \times why의 조합이 평균에서 상위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긍정 프레이밍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프레이밍과 해석수준의 상호작용 효과를 좀 더 입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상호작용 그래프 <Figure 1>과 <Figure 2>를 제시하였다.

이득위험인식에 관한 그래프 <Figure 1>에서는 프레이밍 유형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긍정 프레이밍일 경우, 부정 프레이밍보다 해석수준의 차이에 따른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긍정 프레이밍이 부정 프레이밍보다 영향력이 더 강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 프레이밍 중심으로 보면 why 유형과의 상호작용 그래프의 기울기가 더 급격해 how 유형일 때보다 why 유형일 때 프레이밍의 영향력이 더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Figure 1>에서 해석수준을 중심으로 보면 how 유형일 경우, 프레이밍 유형의 차이에 따른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석수준 중심으로 보면 부정 프레이밍과의 상호작용 그래프의 기울기가 더 급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지지도에 관한 그래프 <Figure 2>를 검토하면 프레이밍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역시 긍정 프레이밍일 경우, 부정 프레이밍보다 해석수준의 차이에 따른 영향을 덜 받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부정 프레이밍에 비해 긍정 프레이밍의 영향력이 더 강하기 때문으로 추론할 수 있다. 또 프레이밍 유형 중심으로 보았을 때 why 유형과의 상호작용 그래프의 기울기가 더 급격한 것으로 나타나 why 유형일 때 프레이밍 유형의 상대적 영향력이 더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Figure 2>에서 해석수준 유형을 중심으로 보면 how 유형일 경우, 프레이밍 유형의 차이에 따른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석수준 중심으로 보면 부정 프레이밍과의 상호작용 그래프의 기울기가 더 급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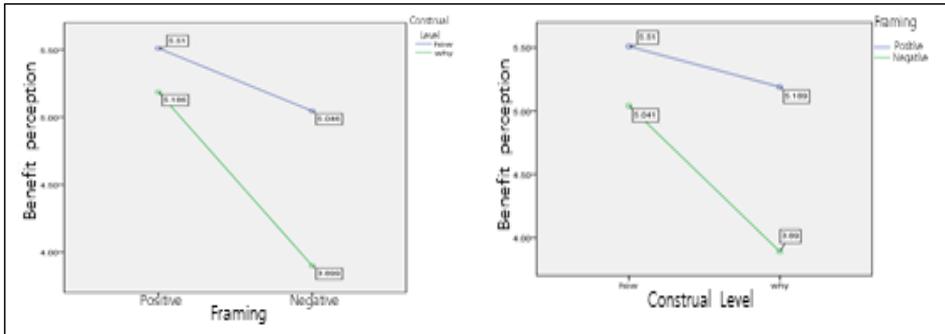


Figure 1. Interaction between framing and construal level types on benefit percep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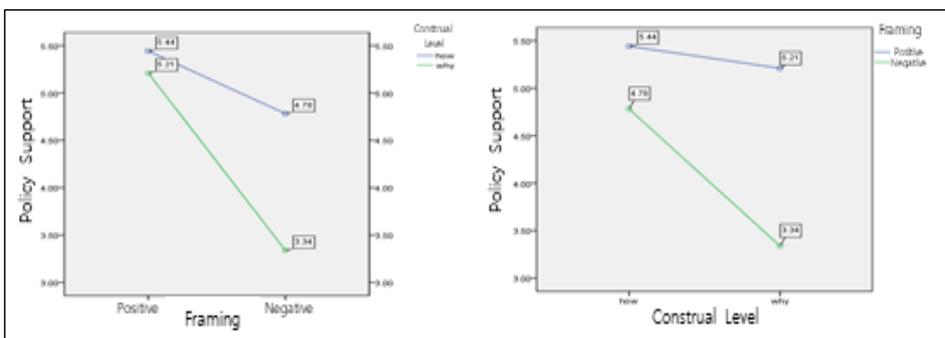


Figure 2. Interaction between framing and construal level types on policy support

마.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정책홍보 메시지의 프레이밍과 시간적 거리감이 수용자의 이득 위험인식과 정책지지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5-1, 5-2>에 대한 검증 결과 연구문제 5-1, 5-2에서는 정책홍보 메시지를 제시하면서 프레이밍 유형과 시간적 거리감 사이의 조합을 서로 달리했을 경우, 정책에 대한 이득위험인식과 정책지지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조사하였다. 이는 곧 긍정 프레이밍 / 부정 프레이밍 유형과 가까운 시간적 거리감 / 먼 시간적 거리감 사이의 상호작용이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를 파악하려는 것이다. <Table 8>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들의 상호작용이 이득위험인식($F(1, 1101) = 53.168, p < .001$), 정책지지도($F(1, 1101) = 77.599, p < .001$)에 미치는 효과는 모두 유의미했다.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Table 13>에 평균과 표준편차를 담았다.

연구문제 5-1을 살펴보면 긍정 프레이밍과 가까운 시간적 거리감($M = 5.38, SD = 0.94$)을 제시했을 때의 실험참여자 집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이득위험인식을 보였다. 여기에서도 일변량 공분산분석으로 단순 주효과 검정을 보완적으로 시행해 두 독립변인 가운데 어느 변인의

메시지 효과가 더 큰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프레이밍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긍정 프레이밍($F(1, 1105) = .500, p > .05$)에 미치는 시간적 거리감의 영향력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부정 프레이밍($F(1, 1105) = 97.963, p < .001$)의 경우에만 시간적 거리감의 영향력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긍정 프레이밍이 제시됐을 때, 가까운 시간적 거리감의 메시지에 노출시키는 것이 이득위험 인식을 높이는 데 다소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메시지의 시간적 거리감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가까운 시간적 거리감($F(1, 1105) = 8.142, p < .01$)과 먼 시간적 거리감($F(1, 1105) = 142.502, p < .001$)에 미치는 프레이밍의 효과는 모두 유의미했다. 이때 평균의 크기는 긍정 프레이밍 × 가까운 시간적 거리감, 긍정 프레이밍 × 먼 시간적 거리감, 부정 프레이밍 × 가까운 시간적 거리감, 부정 프레이밍 × 먼 시간적 거리감 순이었다. 여기서는 긍정 프레이밍의 영향력이 가깝고 먼 시간적 거리감의 효과를 상당 부분 잠식할 정도로 지배적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Table 13.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Benefit Perception, Policy Support according to Framing and Temporal Distance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Temporal distance		Sum	N
			near	far		
Benefit Perception	Framing	positive	$n = 283$ 5.38 (0.94)	$n = 273$ 5.31 (1.15)	5.34 (1.05)	556
		negative	$n = 281$ 5.06 (1.46)	$n = 275$ 3.87 (1.88)	4.47 (1.78)	556
		Sum	5.22 (1.24)	4.59 (1.72)	4.91 (1.53)	1112
Policy support	Framing	positive	$n = 283$ 5.32 (0.84)	$n = 273$ 5.32 (1.00)	5.32 (0.92)	556
		negative	$n = 281$ 4.65 (1.36)	$n = 275$ 3.47 (1.70)	4.07 (1.64)	556
		Sum	4.99 (1.17)	4.39 (1.67)	4.69 (1.47)	1112

연구문제 5-2를 살펴보면 긍정 프레이밍과 가까운 시간적 거리감($M = 5.32, SD = 0.84$)에 노출된 실험참여자 집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정책 지지도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서도 일변량 공분산분석으로 단순 주효과 검정을 보완적으로 시행해 두 독립변인 가운데 어느 변인의 메시지 효과가 더 큰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프레이밍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긍정 프레이밍($F(1, 1105) = .005, p > .05$)에 미치는 시간적 거리감의 영향력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부정 프레이밍($F(1,$

1105) = 118.758, $p < .001$)의 경우에만 이는 긍정 프레이밍에 노출된 상태에서는 가까운 시간적 거리감을 제시하는 것이 정책 지지도를 높이는 데 다소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그 차이는 매우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간적 거리감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에서는 가까운 시간적 거리감 ($F(1, 1105) = 40.933, p < .001$)과 먼 시간적 거리감($F(1, 1105) = 291.074, p < .001$)에 미치는 프레이밍의 효과는 모두 유의미했다. 이때 평균의 크기는 긍정 프레이밍 × 가까운 시간적 거리감, 긍정 프레이밍 × 먼 시간적 거리감, 부정 프레이밍 × 가까운 시간적 거리감, 부정 프레이밍 × 먼 시간적 거리감 순이었다. 정책 지지도에서도 긍정 프레이밍의 영향력이 가깝고 먼 시간적 거리감의 효과를 대부분 잠식할 정도로 압도적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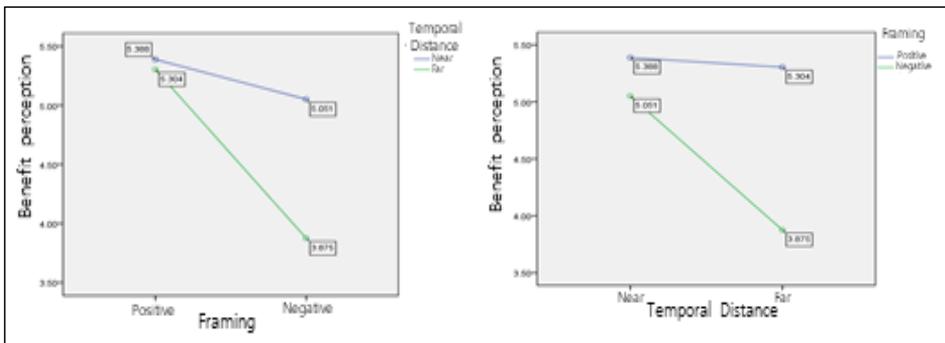


Figure 3. Interaction between framing and temporal distance on benefit percep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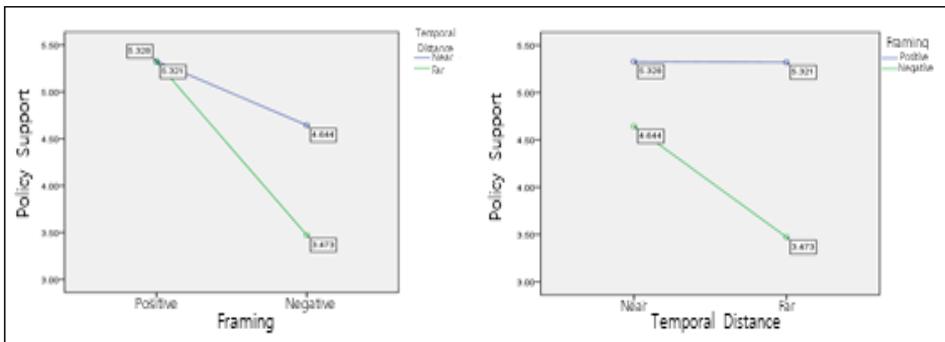


Figure 4. Interaction between framing and temporal distance on policy support

프레이밍과 시간적 거리감 유형의 상호작용 효과를 좀 더 시각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상호작용 그래프 <Figure 3>과 <Figure 4>를 제시하였다.

이득위험인식에 관한 그래프 <Figure 3>을 보면 프레이밍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부정 프

레이밍일 경우, 긍정 프레이밍보다 시간적 거리감에 따른 차이가 극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프레이밍 중심으로 보면 먼 시간적 거리감과 상호작용 그래프의 기울기가 더 급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3>에서 시간적 거리감을 중심으로 보면 먼 시간적 거리감일 경우, 프레이밍에 따른 차이가 극대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시간적 거리감 중심으로 보면 부정 프레이밍과의 상호작용 그래프의 기울기가 더 급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지지도에 관한 그래프 <Figure 4>를 검토하면 프레이밍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역시 부정 프레이밍일 경우, 시간적 거리감에 따른 차이가 극대화됐다. 또 프레이밍 중심으로 보면 먼 시간적 거리감과 상호작용 그래프의 기울기가 더 급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4>에서 시간적 거리감 중심에서 보면 먼 시간적 거리감일 경우, 프레이밍 유형에 따른 차이가 극대화됐다. 또 시간적 거리감 중심으로 볼 때 부정 프레이밍과의 상호작용 그래프의 기울기가 더 급격하고 긍정 프레이밍과의 상호작용 그래프의 기울기는 거의 수평으로 나타났다.

바.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정책홍보 메시지의 해석수준 유형과 시간적 거리감이 수용자의 이득위험인식과 정책지지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가설 6-1, 6-2>에 대한 검증 결과

연구가설 6-1, 6-2와 관련해서는 정책홍보 메시지를 구성할 때 how 유형은 가까운 시간적 거리감과 함께, why 유형은 먼 시간적 거리감과 함께 제시했을 때 정책에 대한 수용자의 이득위험인식과 정책지지도가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이 뒷받침되는지를 조사하였다. 이는 하위해석수준(how) / 상위해석수준(why) 유형과 가까운 시간적 거리감 / 먼 시간적 거리감 사이의 상호작용이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를 알아보려는 것이다. <Table 8>에 제시된 대로 이들의 상호작용이 이득위험인식($F(1, 1101) = 114.210, p < .001$), 정책지지도($F(1, 1101) = 96.477, p < .001$)에 미치는 효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Table 14>에 정리했다.

Table 14.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Benefit Perception, Policy Support according to Construal Levels and Types of Temporal Distance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Temporal distance		Sum	N
			near	far		
Benefit perception	Construal level	how	n = 283 5.19 (1.19)	n = 270 5.36 (1.12)	5.28 (1.16)	553
		why	n = 281 5.25 (1.28)	n = 278 3.83 (1.86)	4.54 (1.74)	559
		Sum	5.22 (1.24)	4.59 (1.72)	4.91 (1.53)	1112
Policy support	Construal level	how	n = 283 5.08 (1.16)	n = 270 5.14 (1.20)	5.11 (1.18)	553
		why	n = 281 4.90 (1.19)	n = 278 3.67 (1.75)	4.29 (1.61)	559
		Sum	4.99 (1.17)	4.39 (1.67)	4.69 (1.47)	1112

연구가설 6-1을 살펴보면 하위해석수준(how)과 먼 시간적 거리감($M = 5.36$, $SD = 1.12$)에 노출된 실험참여자의 집단이 정책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득위험인식을 보였다. 연구가설 6-1은 기각되었다. 앞서 독립변인들의 주효과 분석에서 모두 유의미하게 하위해석수준이 상위해석수준보다 더 효과적이었고 가까운 시간적 거리감이 먼 시간적 거리감보다 효과가 더 컸던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결과는 예상 밖이다. 가설이 기각된 것은 하위해석수준과 가까운 시간적 거리감의 조합이 상호작용 효과를 높인다는 해석수준이론의 전통적인 설명에서도 벗어나는 것이다. 이론적 배경에서 검토했듯이 과학기술 영역에 속하고 미래가치가 더욱 중시되는 메시지 대상의 특성에 따른 결과일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이득 인식에 있어서 how 유형과 가까운 시간적 거리감은 2×2 조합에서 세 번째의 영향력 크기를 보이고 있어 해석수준이론이 상정한 동일 특성 사이의 적합 효과에 완전히 어긋나게 상호작용 효과를 오히려 반감시키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도 일변량 공분산분석으로 단순 주효과 검정을 시행해 두 독립변인 가운데 어느 변인의 메시지 효과가 더 큰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해석수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하위해석수준 유형($F(1, 1105) = 2.180$, $p > .05$)에 미치는 시간적 거리감의 영향력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상위해석수준 ($F(1, 1105) = 145.735$, $p < .001$)의 경우에만 시간적 거리감의 영향력이 유의미했다. 이를 평균의 차이와 함께 살펴보면 하위해석수준이 제시됐을 때, 여기 미치는 시간적 거리감의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지만 먼 시간적 거리감과 결합했을 경우는 상호작용 효과를 크게 높여 독립변인들의 주효과에서 각각 영향력이 컸던 하위해석수준과 가까운 시간적 거리감의 조합보다 더 큰 효과를 나타내는 역전 현상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메시지의 시간적 거리감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

과에서는 가까운 시간적 거리감($F(1, 1105) = .323, p > .05$)에 미치는 해석수준의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먼 시간적 거리감($F(1, 1105) = 165.374, p < .001$)에 미치는 해석수준의 효과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태에서 평균의 크기는 하위해석수준 × 먼 시간적 거리감, 상위해석수준 × 가까운 시간적 거리감, 하위해석수준 × 가까운 시간적 거리감, 상위해석수준 × 먼 시간적 거리감 순이었다. 이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해석수준과 시간적 거리감 사이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게 나온 것은 먼 시간적 거리감이 하위, 또는 상위해석수준과 만났을 때 나타내는 상호작용 효과의 차이가 커서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추론된다.

연구가설 6-2를 검토하면 하위해석수준(how)과 먼 시간적 거리감($M = 5.14, SD = 1.20$)이 제시됐을 때의 실험참여자 집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정책 지지도를 나타냈다. 따라서 연구가설 6-2는 기각되었다. 이는 이득인식에서와 같이 먼 시간적 거리감이 하위해석수준과 만났을 때 상호작용 효과를 크게 증폭시키면서 높은 적합도를 보인 결과여서 주목된다. 가설이 기각된 것은 해석수준이론의 전통적인 설명과도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이득인식의 경우에서와 같은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정책 지지도와 관련해서도 평균의 차이를 살펴보면 how 유형과 가까운 시간적 거리감은 2 × 2 조합에서 두 번째의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해석수준이론이 상정한 동일 특성 사이의 적합 효과를 오히려 반감시키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도 일변량 공분산분석으로 단순 주효과 검정을 보완적으로 시행했다.

그 결과를 해석수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하위해석수준($F(1, 1105) = .317, p > .05$)에 미치는 시간적 거리감의 영향력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고 상위해석수준($F(1, 1105) = 117.150, p < .001$)의 경우에만 시간적 거리감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이를 평균의 차이와 함께 살펴보면 이득인식에서처럼 하위해석수준과 먼 시간적 거리감과의 결합이 상호작용 효과를 크게 높여 하위해석수준과 가까운 시간적 거리감의 조합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역전 현상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메시지의 시간적 거리감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에서는 가까운 시간적 거리감($F(1, 1105) = 2.495, p > .05$)에 미치는 해석수준의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고 먼 시간적 거리감($F(1, 1105) = 164.672, p < .001$)에 미치는 해석수준의 효과만 유의미했다. 이런 상태에서 평균의 크기는 하위해석수준 × 먼 시간적 거리감, 하위해석수준 × 가까운 시간적 거리감, 상위해석수준 × 가까운 시간적 거리감, 상위해석수준 × 먼 시간적 거리감 순이었다. 이와 관련해서도 전체적으로 해석수준과 시간적 거리감 사이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게 나온 것은 먼 시간적 거리감이 하위, 또는 상위해석수준과 만났을 때 정책 지지도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의 차이가 실질적인 영향을 줄 정도로 컸기 때문으로 추론된다.

해석수준과 시간적 거리감의 상호작용 효과를 좀 더 입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상호작용

그래프 <Figure 5>와 <Figure 6>를 아래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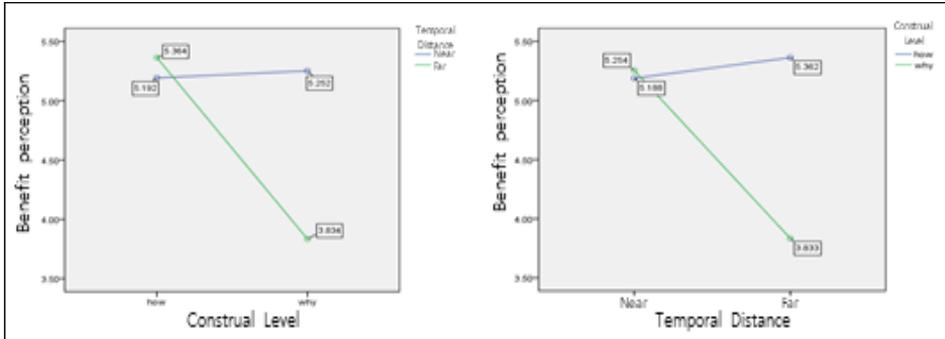


Figure 5. Interaction between construal level and temporal distance on benefit percep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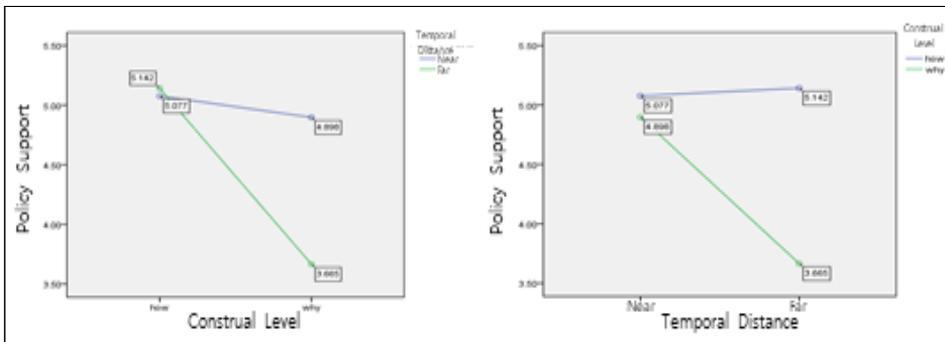


Figure 6. Interaction between construal level and temporal distance on policy support

이득위험인식에 관한 그래프 <Figure 5>를 보면 해석수준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why 유형일 경우, how 유형보다 시간적 거리감 유형에 따른 차이가 극대화하고 있다. 또 해석수준 중심에서 먼 시간적 거리감과의 상호작용 그래프의 기울기가 더 급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5>에서 시간적 거리감을 중심으로 보면 먼 시간적 거리감일 경우, 해석수준에 따른 차이가 극대화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시간적 거리감 중심으로 보면 why 유형과의 상호작용 그래프의 기울기가 더 급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지지도에 관한 그래프 <Figure 6>을 검토하면 해석수준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역시 why 유형일 경우, 시간적 거리감에 따른 차이가 극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석수준 중심으로 보면 먼 시간적 거리감과의 상호작용 그래프의 기울기가 더 급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6>에서 시간적 거리감 중심에서 보면 먼 시간적 거리감일 경우, 해석수준 유형에 따른

차이가 극대화하고 있다. 또 시간적 거리감 중심으로 볼 때 why 유형과의 상호작용 그래프의 기울기가 더 급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Figure 5>와 <Figure 6>에서는 모두 해석수준이론의 전통적인 설명과는 다르게 how 유형과 먼 시간적 거리감이 만났을 때 수용자의 호의적 반응이 가장 높게 나온 것으로 나타나 있다.

사.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정책홍보 메시지의 프레이밍, 해석수준, 시간적 거리감 유형이 수용자의 이득위험인식과 정책지지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7-1, 7-2>에 대한 검증 결과 연구문제 7-1, 7-2와 관련해서는 정책홍보 메시지를 구성하는 프레이밍, 해석수준, 시간적 거리감 사이의 조합을 서로 달리해 제시했을 때 정책에 대한 수용자의 이득위험인식과 정책 지지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조사하였다. 이는 세 독립변인의 삼원 상호작용이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를 알아보려는 것이다. 실험 결과를 보면 이들의 삼원 상호작용이 이득위험인식($F(1, 1101) = 68.288, p < .001$), 정책지지도($F(1, 1101) = 52.961, p < .001$)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에 그 결과가 정리돼 있다.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Table 15>, <Table 16>에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했다.

Table 15.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Benefit Perception according to Framing, Construal Level and Temporal Distance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Construal level				Sum	N	
			how		why				
			Temporal distance		Temporal distance				
			near	far	near	far			
Benefit perception	Framing	positive framing	<i>n</i> = 139 5.45(0.94)	<i>n</i> = 134 5.56(0.96)	<i>n</i> = 144 5.31(0.94)	<i>n</i> = 139 5.06(1.27)	5.34 (1.05)	556	
			5.51 (0.95)		5.19 (1.12)				
		negative framing	<i>n</i> = 144 4.94(1.35)	<i>n</i> = 136 5.17(1.23)	<i>n</i> = 137 5.19(1.55)	<i>n</i> = 139 2.60(1.51)	4.47 (1.78)		556
			5.05 (1.30)		3.89 (2.00)				
		Sum	5.28 (1.16)		4.54 (1.74)		4.91 (1.53)	1112	

Table 16.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Policy Support according to Framing, Construal level, and Temporal Distance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Construal level				Sum	N	
			how		why				
			Temporal distance		Temporal distance				
			near	far	near	far			
Policy support	Framing	positive framing	<i>n</i> = 139 5.36(0.88)	<i>n</i> = 134 5.53(0.77)	<i>n</i> = 144 5.29(0.80)	<i>n</i> = 139 5.12(1.14)	5.32 (0.92)	556	
			5.44 (0.83)		5.21 (0.98)				
	Framing	negative framing	<i>n</i> = 144 4.80(1.32)	<i>n</i> = 136 4.76(1.41)	<i>n</i> = 137 4.48(1.38)	<i>n</i> = 139 2.21(0.74)	4.47 (1.78)	556	
			4.78 (1.36)		3.34 (1.58)				
			Sum	5.11 (1.18)		4.29 (1.61)		4.69 (1.47)	1112

<Table 15>과 <Table 16>을 종합적으로 보면 세 독립변인간 삼원 상호작용은 긍정 프레이밍-하위 해석수준(how)-먼 시간적 거리감 조건에서 이득인식($M = 5.56$, $SD = 0.96$), 정책지지도($M = 5.53$, $SD = 0.77$)를 높이는데 가장 강한 영향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삼원 상호작용에서도 이원 상호작용에서처럼 하위해석수준과 먼 시간적 거리감의 상호 적합도가 높게 유지됐기 때문일 것으로 보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앞서도 언급했듯이 해석수준이론의 전통적인 설명에서는 벗어난 것이다. 건강 메시지나 상품 구매의도 등과 관련해 해석수준이론을 적용한 실험에서도 반드시 일관된 결과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도 결론 부분에서 에너지전환 정책의 어떤 특성이 메시지 효과에 영향을 미쳤을지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8개의 실험집단 사이에서 나타난 삼원 상호작용의 평균값 차이를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득인식과 정책 지지도에서 모두 긍정 프레이밍-하위 해석수준-가까운 시간적 거리감 조건이 긍정 프레이밍-하위 해석수준-먼 시간적 거리감 조건에 이어 두 번째로 강한 삼원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낸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보면 본 연구에서 하위해석수준과 가까운 시간적 거리감 사이의 상호 적합도가 완전히 부인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해석수준이론의 전통적 설명이 상정한 대로 하위해석수준과 가까운 시간적 거리감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도 상당한 정도로 나타난 상태에서 하위해석수준과 먼 시간적 거리감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가 극적으로 높아져 효과의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프레이밍과 해석수준, 그리고 시간적 거리감 사이의 삼원 상호작용 효과를 좀 더 입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3차원을 각각 두 개로 나눈 상호작용 그래프 <Figure 7>과 <Figure 8>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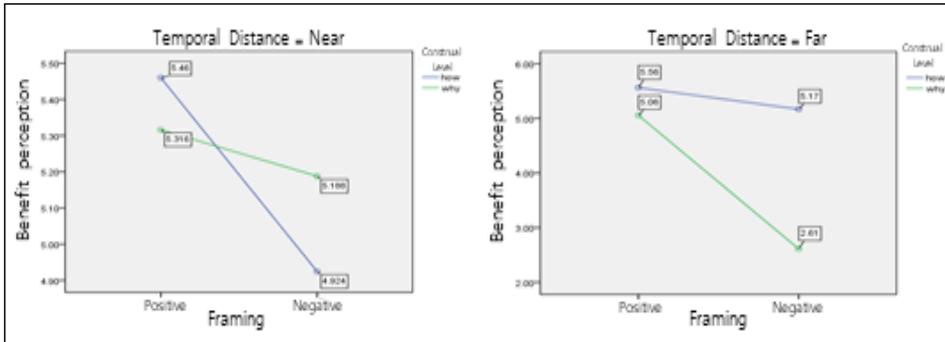


Figure 7. Three-way interaction of framing, construal level, and temporal distance on benefit perception

이득위험인식에 관한 그래프 <Figure 7>을 보면 가까운 시간적 거리감 조건에서 프레이밍에 따른 해석수준의 상호작용 그래프의 기울기는 how 유형일 때가 why 유형일 때보다 급격했다. 이와 함께 먼 시간적 거리감 조건에서는 프레이밍에 따른 해석수준의 상호작용 그래프의 기울기는 why 유형일 때가 how 유형일 때보다 더 급했다. 이로 미루어 보면 비록 how 유형과 먼 시간적 거리감이 가장 높은 호의적 반응을 불러왔지만 해석수준이론에 입각한 상호작용 적합도가 완전히 부인된 것은 아니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정책 지지도에 관한 <Figure 8>을 보면 가까운 시간적 거리감 조건에서 프레이밍에 따른 해석수준의 상호작용 그래프의 기울기는 why 유형일 때가 how 유형일 때보다 급격하게 나타났다. 반면에 먼 시간적 거리감 조건에서도 프레이밍에 따른 해석수준의 상호작용 그래프의 기울기는 역시 why 유형일 때가 how 유형일 때보다 더 급했다. 이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정책 지지도에 있어서는 이득위험인식에서와 달리 해석수준과 시간적 거리감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의 방향성이 혼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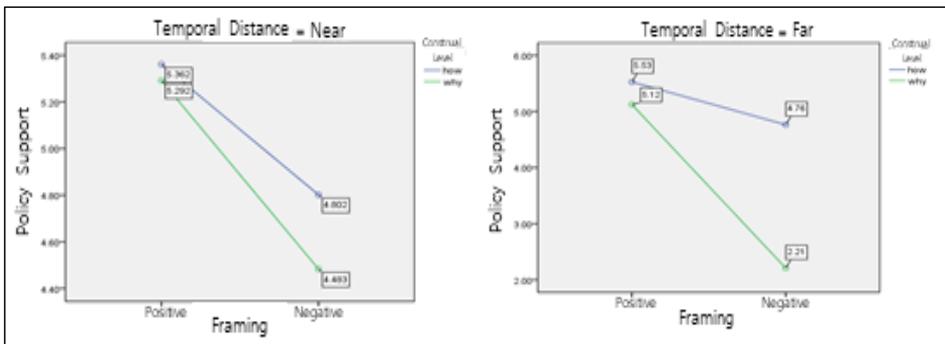


Figure 8. Three-way interaction of framing, construal level, and temporal distance on policy support

아.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정책홍보 메시지와 관련해 수용자의 정치적 성향과 프레이밍, 해석수준, 시간적 거리감의 상호작용이 수용자의 이득위험인식과 정책지지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가설 8-1, 8-2>에 대한 검증 결과

연구가설 8-1, 8-2를 검증하기 위해 조절 변인으로 설정한 사용자 특성인 정치적 성향의 조절 효과를 조사할 목적에서 정치적 성향을 포함해 다변량 공분산분석(MANCOVA)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인 프레이밍 유형, 해석수준 유형, 시간적 거리감과 조절 변인인 정치적 성향이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이득위험인식, 정책지지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개체간 효과 검정과 다변량 검정의 결과는 <Table 17>에 제시했다.

Table 17. Verification of Influence on Benefit Perception, Policy Support by Variable Type(including Control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Wilks' Lambda	F	Eta ²	Observation power
Framing(A)	benefit perception	0.734	142.354 ***	0.115	1.000
	policy support	F = 198.294 ***	380.161 ***	0.258	1.000
Construal level(B)	benefit perception	0.852	102.240 ***	0.085	1.000
	policy support	F = 95.147 ***	163.298 ***	0.014	1.000
Temporal distance(C)	benefit perception	0.910	72.719 ***	0.062	1.000
	policy support	F = 53.871 ***	80.419 ***	0.068	1.000
Political orientation(D)	benefit perception	0.993	6.820 **	0.006	0.742
	policy support	F = 3.632 *	2.920	0.003	0.400
(A)*(B)	benefit perception	0.929	30.828 ***	0.027	1.000
	policy support	F = 42.115 ***	80.489 ***	0.068	1.000
(A)*(C)	benefit perception	0.923	53.010 ***	0.046	1.000
	policy support	F = 45.788 ***	75.791 ***	0.065	1.000
(A)*(D)	benefit perception	0.987	12.461 ***	0.011	0.941
	policy support	F = 6.931 **	6.581 *	0.000	0.727
(B)*(C)	benefit perception	0.883	111.412 ***	0.092	1.000
	policy support	F = 72.477 ***	94.286 ***	0.079	1.000
(B)*(D)	benefit perception	0.998	1.301	0.001	0.207
	policy support	F = 1.110	0.152	0.000	0.068
(C)*(D)	benefit perception	1.000	0.255	0.000	0.080
	policy support	F = .141	0.131	0.000	0.065
(A)*(B)*(C)	benefit perception	0.927	68.403 ***	0.059	1.000
	policy support	F = 43.056 ***	53.430 ***	0.046	1.000
(A)*(B)*(D)	benefit perception	0.999	0.005	0.000	0.051
	policy support	F = .805	1.255	0.001	0.201
(A)*(C)*(D)	benefit perception	0.999	1.375	0.001	0.216
	policy support	F = .749	0.662	0.001	0.129
(B)*(C)*(D)	benefit perception	1.000	0.000	0.000	0.050
	policy support	F = .175	0.292	0.000	0.084
(A)*(B)*(C)*(D)	benefit perception	0.996	4.937	0.004	0.603
	policy support	F = 2.466	0.871	0.001	0.154

*p < .05, **p < .01, ***p < .001.

〈Table 17〉에 제시된 윌크스 람다값에 따르면 정치적 성향($F(1, 1096) = 3.632, p < .05$)은 낮은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주효과를 나타냈다. 다만, 다른 독립변인에 대한 정치적 성향의 조절 효과와 관련해서는 프레이밍과의 사이에서만($F(1, 1096) = 6.931, p < .01$)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호작용을 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파악된 프레이밍과 정치적 성향 변인을 중심으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18〉에 제시했다.

Table 18.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Benefit Perception, Policy Support according to Framing and Political Orientation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Political orientation		Sum	N
			conservative	progressive		
Benefit perception	Framing	positive	$n = 294$ 5.14 (1.11)	$n = 262$ 5.58 (0.93)	5.34 (1.05)	556
		negative	$n = 304$ 4.57 (1.76)	$n = 252$ 4.36 (1.81)	4.47 (1.78)	556
		Sum	4.85 (1.50)	4.98 (1.55)	4.91 (1.53)	1112
Policy support	Framing	positive	$n = 294$ 5.20 (0.98)	$n = 262$ 5.47 (0.83)	5.32 (0.92)	556
		negative	$n = 304$ 4.16 (1.69)	$n = 252$ 3.95 (1.58)	4.07 (1.64)	556
		Sum	4.67 (1.48)	4.72 (1.46)	4.69 (1.47)	1112

연구가설 8-1, 8-2에 대한 검증은 정치적 성향이 프레이밍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종속변인인 이득위험인식과 정책 지지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정책 홍보 메시지의 긍정 / 부정 프레이밍과 보수 / 진보 성향 사이의 조합을 서로 달리했을 경우의 상호작용 효과를 조사하였다. 〈Table 17〉을 보면 정치적 성향과 프레이밍의 상호작용이 이득위험인식($F(1, 1101) = 12.461, p < .001$), 정책 지지도($F(1, 1101) = 6.581, p < .05$)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 수준은 다르지만 모두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연구가설 8-1을 살펴보면 정치적 성향이 진보인 실험참여자 집단이 긍정 프레이밍($M = 5.58, SD = 0.93$)에 노출됐을 때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이득위험인식을 보였다. 이는 진보 성향이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이득위험인식을 높일 것이라는 가설을 뒷받침한다. 다만 좀 더 세부적으로 집단간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진보 성향도 부정 프레이밍에 노출됐을 때에는 보수 성향에 비해 낮은 이득위험인식을 보였다. 이는 긍정 프레이밍에서만 정치적 성향의 조절 효과가 나타난 결과여서 연구가설 8-1은 부분 지지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각 변인의 영향력 차이를 파

약하기 위해 일변량 공분산분석으로 단순 주효과 검정을 보완적으로 시행했다.

그 결과를 프레이밍 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긍정 프레이밍($F(1, 1108) = 12.695, p < .001$)에 미치는 정치적 성향의 영향력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지만 부정 프레이밍($F(1, 1108) = 2.729, p > .05$)의 경우에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는 긍정 프레이밍일 경우에만 가설이 지지된 것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정치적 성향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에서는 보수 성향($F(1, 1108) = 22.976, p < .001$)과 진보 성향($F(1, 1108) = 89.673, p < .001$)에 미치는 프레이밍의 효과는 모두 유의미했다. 이는 정치적 성향에 비해 프레이밍이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연구가설 8-2를 살펴보면 정치적 성향이 진보인 실험참여자 집단이 긍정 프레이밍($M = 5.47, SD = 0.83$)에 노출됐을 때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정책지지도를 나타냈다. 역시 이는 이득위험인식에서와 같이 진보 성향이 정책 지지도를 높일 것이라는 가설을 뒷받침한다. 여기에서도 세부적으로 집단간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진보 성향이라고 해도 부정 프레이밍에 노출됐을 때에는 보수 성향에 비해 낮은 정책 지지도를 나타냈다. 역시 이는 긍정 프레이밍에서만 정치적 성향의 조절 효과가 나타난 결과여서 연구가설 8-2은 부분 지지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각 변인의 영향력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일변량 공분산분석으로 단순 주효과 검정을 보완적으로 시행했다.

그 결과를 프레이밍 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긍정 프레이밍($F(1, 1108) = 5.818, p < .05$)에 미치는 정치적 성향의 영향력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지만 부정 프레이밍($F(1, 1108) = 3.456, p > .05$)의 경우에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긍정 프레이밍일 경우에만 가설이 지지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정치적 성향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에서는 보수 성향($F(1, 1108) = 22.976, p < .001$)과 진보 성향($F(1, 1108) = 89.673, p < .001$)에 미치는 프레이밍의 효과는 모두 유의미했다. 이는 역시 수용자의 정치적 성향에 비해 프레이밍이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여겨진다.

프레이밍과 정치적 성향의 상호작용 효과를 좀 더 시각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상호작용 그래프(Figure 9)와(Figure 10)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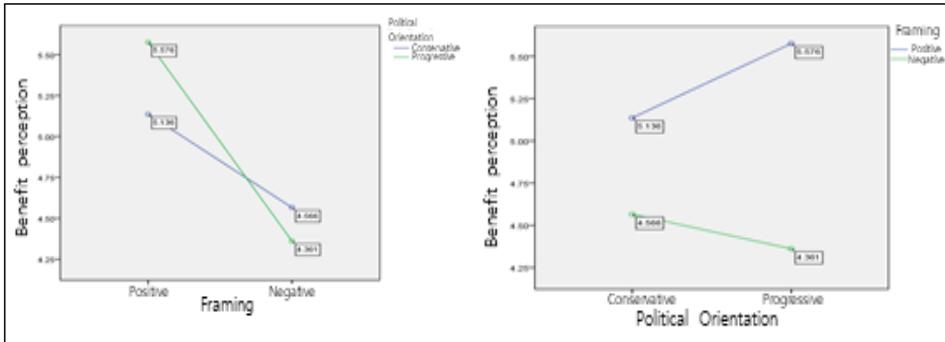


Figure 9. Interaction between framing and political orientation on benefit percep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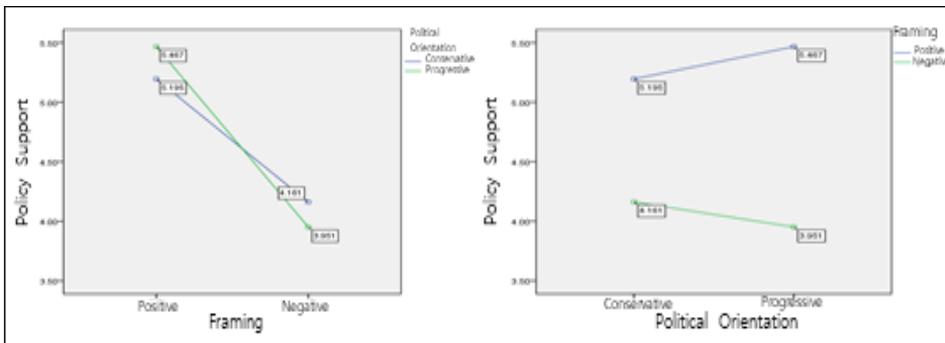


Figure 10. Interaction between framing and political orientation on policy support

이득위험인식에 관한 그래프 <Figure 9>를 살펴보면 프레임 유형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진보 성향과의 상호작용 그래프의 기울기가 더 급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9>에서 정치적 성향을 중심으로 보면 진보 성향일 경우, 프레임에 따른 차이가 극대화하는 것으로 나타나 진보 성향의 수용자는 긍정 / 부정 프레임에 노출됐을 때 이득위험인식에서 양극화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책 지지도에 관한 그래프 <Figure 10>을 보면 프레임 유형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진보 성향과의 상호작용 그래프의 기울기가 더 급격했다. <Figure 10>에서 정치적 성향을 중심으로 보면 진보 성향일 경우, 프레임에 따른 차이가 극대화하는 것으로 나타나 진보 성향의 수용자는 긍정 / 부정 프레임에 노출됐을 때 정책 지지도에서도 양쪽 끝으로 나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연구결과 및 함의

1) 연구의 결과

본 연구에서 긍정 프레이밍이 부정 프레이밍보다 이득인식과 정책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강할 것으로 예상한 연구가설 1-1과 1-2가 지지된 것은 에너지전환 정책에 수반된 불확실성이나 위험성이 원전 유지 정책에 비해 뚜렷하게 낮게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문제 2-1과 2-2에서 how 유형의 메시지가 why 유형보다 두 종속변수 모두에서 더 호의적인 반응을 유발한 것은 수용자들이 정책의 바람직성(desirability)보다는 실현가능성(feasibility), 즉 how 유형에 더 주목한 때문으로 생각된다. 연구문제 3-1과 3-2에서 가까운 시간적 거리감이 두 종속변수 모두에서 더 강한 영향력을 미친 것은 수용자들이 먼 미래의 목적이 갖는 바람직성보다 가까운 미래의 수단을 통한 실현가능성에 더 주목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연구문제 4-1과 4-2에서 긍정 프레이밍과 how 유형이 결합했을 때 두 종속변수 모두에서 수용자의 호의적 반응을 이끄는 데 가장 강한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낸 것은 긍정 프레이밍에 노출돼 정책의 이득에 주목하게 된 수용자들이 동시에 how 유형을 접했을 때 보다 집중적으로 이득의 구체적, 절차적, 수단적 실현가능성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구문제 5-1과 5-2에서 긍정 프레이밍과 가까운 시간적 거리감이 짝을 이뤘을 때 두 종속변수 모두에서 가장 강한 상호작용 효과를 보인 것은 긍정 프레이밍에 노출돼 정책의 이득에 주목하게 된 수용자들이 동시에 이득의 빠른 실현을 기대하면서 가까운 시간적 거리감의 메시지를 접했을 때 더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여겨진다.

연구가설 6-1과 6-2에서 해석수준이론에 따른 가설이 지지되지 못하고 해석수준 특성이 다른 how 유형과 먼 시간적 거리감이 짝을 이뤘을 때 가장 강한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낸 것은 상품구매 의도 등과 관련된 실험에서 상품의 종류에 따라 동일한 해석수준 특성들 사이의 적합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것과 궤를 같이한다. 본 연구에서도 메시지의 대상이 갖는 속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 데 에너지전환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은 과학기술의 영역에 속한다는 점이다. 이 정책이 목표로 하는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를 위한 기술력, how 영역은 미래 발전 가능성이 더욱 기대되는 분야이다. 에너지전환 정책의 또 다른 특성은 원전의 중단, 또는 단계적 폐기와 관련돼 있어 구체적 수단이나 절차로 보면 정책이 추진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에너지전환 정책의 구체적인 수단이나 절차, 실현가능성 등을 담은 how 유형은 오히려 미래에 충족될 것으로 기대하는 먼 시간적 거리감과 결합했을 때 상호작용 효과가 커질 여지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실험 결과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고 설명

될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전환 정책과 유사하게 과학기술 영역에 속하는 자율주행 택시의 사용 의도와 관련된 연구에서 역시 긍정 프레이밍이 먼 사용 시기와 결합했을 때 사용 의도를 가장 높이는 상호작용 효과를 보이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윤승정·김민용, 2018)는 점도 분석에 주의 깊게 참작해야 할 것이다.

연구문제 7-1과 7-2와 관련해 긍정 프레이밍, how 유형, 먼 시간적 거리감 조건일 때 두 종속변수 모두에서 수용자의 호의적 반응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삼원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how 유형과 먼 시간적 거리감 사이에 나타난 적합 효과가 동시에 긍정 프레이밍이 제시된 조건에서도 지속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8에서는 정치적 성향이 긍정 / 부정 프레이밍과의 상호작용에서 조절 효과를 나타냈으나 진보 성향이 긍정 프레이밍에 노출됐을 때 뚜렷한 조절 효과를 보인 반면 부정 프레이밍에 노출됐을 때는 조절 효과가 확인되지 않는 등의 결과가 나와 가설은 부분적으로만 지지됐다. 실제 실험 결과에서 정치적 성향의 조절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난 것은 보수 성향의 시민들도 원자력 발전에 내포된 재앙적인 사고 위험성을 무시하기 어렵고 정책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와중에서도 실제의 선택에서는 판단이 신중해지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함의

본 연구의 문제 제기 and 연구목적, 그리고 이론의 적용에 따른 결론들을 종합하면 본 연구는 기존의 원전 정책과 관련된 커뮤니케이션학 차원의 보완적, 추가적 재검점이 아니라 새로운 정책이 실제로 추진되는 전환기적 상황에서 시도되는 학문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시의성에 기반한 함의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전망이론과 해석수준이론을 접목하여 적용함으로써 이 이론들이 정책 메시지 분야에서 가질 수 있는 학문적 의미를 탐색해 볼 수 있었다.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 분야, 그 가운데서도 과학기술 영역에 속하는 정책 분야에서 본 연구는 나름대로 탐색적 시도를 했고 그 결과, 이론들의 외연 확장에 기여 할만한 이론적 함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본 연구가 전망이론을 적용한 결과에서 긍정 프레이밍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가설이 지지된 것은 전망이론이 핵심적 요소로 제시한 '위험'의 개념이 더욱 정교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초기 전망이론은 특정 메시지가 불확실한 잠재적 위험을 대상으로 할 경우, 손실-부정 프레이밍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메시지에 담긴 대상이나 사건, 또는 메시지가 목표로 하는 행동에 수반하는 위험의 정도나 위험의 유형, 손실 개연성 등에 따라 긍정 / 부정 프레이밍 효과의 우열이 역전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Kiene et al., 2005; Rivers et al., 2005;

Robberson & Rogers, 1988; Tversky & Kahneman, 1992)을 참조하여 에너지전환 정책의 경우에는 긍정 프레이밍이 더 효과적인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고 그 가설이 지지된 것이다. 이 같은 가설을 세운 것은 수용자들이 기존 원전 유지 정책과 비교했을 때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서는 수반되는 잠재적 위험성이나 불확실성, 손실 개연성의 정도를 한층 낮게 인식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험 결과에서 본 연구는 전망이론에 있어서 긍정 / 부정 프레이밍의 효과의 차이는 선형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험성'이라는 상대적 개념에 연동돼 변화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프레이밍 효과의 우열 여부에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위험성'의 기준과 관련해서 헬스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선행 연구들 가운데에서는 같은 예방 행동일지라도 수용자가 인식할 수 있는 위험성의 차이를 서로 다르게 조작한 결과, 부정 프레이밍이 더 효과적인 경우가 나타나(Kiene et al., 2005; Rivers et al., 2005; Robberson & Rogers, 1988) 등 위험성 판단의 상대적 속성이 확인되었다. 이런 맥락을 감안하면 본 연구가 에너지전환 정책에 전망이론을 적용하여 긍정 프레이밍의 우월적 효과를 확인한 것은 커뮤니케이션 분야를 포함한 사회과학 분야에서 메시지 대상의 '위험성' 정도를 가늠하는 이론적 예시를 제공했다는 함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위험성'에 대해서는 준거점을 기준으로 위험성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 정책적 대변화의 시기에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준거점은 바로 기존 정책, 즉 원전 유지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론적 관점에서 해석수준이론의 전통적인 설명에 따른 가설은 지지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인 이론적 검토가 필요하다. 변인들 사이의 상호 적합도가 해석수준이론이 상정한 대로 나타나지 않은 경우는 상품구매 의도 등을 분석한 선행 연구들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김민혜, 2011; 이병관, 2011; 임성준·윤혜원·윤용식·손영우, 2009).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가 정책 분야에서 해석수준이론의 외연 확장에 이론적 함의를 보낼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역시 메시지 대상의 고유한 특성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미래 가치가 더 중시되는 에너지전환 정책의 기본적 특성에 비추어 보면 수용자들이 정책의 how 차원, 즉 실현가능성(feasibility)에 주목하면서도 실현 시점에 대한 기대를 먼 미래에 두는 데 더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이 정책이 갖는 미래지향적 성격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존 문헌 가운데에는 수용자가 미래지향적 관점을 가지면 시간 할인(time discounting)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도 있었다(Rabinovich, Morton, & Postmes, 2010).

본 연구가 이론적 시각에서 제기한 논의들은 실용적, 실증적 측면에서의 함의로 이어질 수 있다. 우선 에너지전환 정책과 같은 국가적 이슈를 정책홍보 차원에서 다룰 때는 당장 효과를 내

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시간적 거리감이 상대적으로 멀게 느껴지더라도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데 비중을 두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위험성이 낮게 인식된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 프레이밍이 한층 효과적이라는 점이 확인된 것은 정책 도입 시 정책 대상의 위험성 정도나 위험성 인식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파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정치적 성향을 조절 변인으로 상정한 것은 현실에서의 갈등 양상을 반영한 것이지만 실제 실험 결과 그 영향력은 제한적임이 드러난 것은 홍보 메시지를 구성할 때 정치적 성향에 지나치게 휘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시사점을 던져준다.

References

- Boo, S. H. (2013). The effect of temporal perspective and predicted valence on preventive health behavior: The persuasive impact of fit between temporal construal level and message fram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Butler, C., Demski, C., Parkhill, K., Pidgeon, N., & Spence, A. (2015). Public values for energy futures: Framing, indeterminacy and policy making. *Energy policy*, *87*, 665-672.
- Carnevale, P. J. (2008). Positive affect and decision frame in negotiation. *Group Decision and Negotiation*, *17*(1), 51-63.
- Chaiken, S. (1982, October). *The heuristic/systematic processing distinction in persuasion*. Paper presented at the Symposium on Automatic Processing, Society for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Nashville, IN.
- Cho, S. (2012). A study on schema types of energy mix stakeholders : Risk perception for nuclear energy and communic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Choi, Y. (2018). The social media's effect on political participation: In search of the moderating variables. *Journal of Political Communication*, *49*, 179-214.
- Clark, C. E., Hart, P. S., Schuldt, J. P., Evensen, D. T., Boudet, H. S., Jacquet, J. B., & Stedman, R. C. (2015). Public opinion on energy development: the interplay of issue framing, top-of-mind associations, and political ideology. *Energy Policy*, *81*, 131-140.
- Cohen, A. A., Adoni, H., Bantz, C. R., Robinson, D. C., Blumler, J. G., & Gurevitch, M. (1990). *Social conflict and television news*(Sage library of social research, 183).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Inc.
- Converse, P. E. (1964). The nature of belief systems in mass publics. In David E. Apter (Eds.), *Ideology and Its Discontents*. New York, NY: The Free Press of Glencoe.
- Eom, H. S. (2018). A study on the effects of message frame on the reliability of newspaper articles: Considering the political alignment between the press and the audi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Seoul, Korea.
- Finucane, M. L., Alhakami, A., Slovic, P., & Johnson, S. M. (2000). The affect heuristic in judgments of risks and benefits. *Journal of Behavioral Decision Making*, *13*(1), 1-17.
- Fujita, K., Henderson, M. D., Eng, J., Trope, Y., & Liberman, N. (2006). Spatial distance and mental

construal of social events. *Psychological Science*, 17(4), 278-282.

- Gamson, W. A., & Modigliani, A. (1989). Media discourse and public opinion on nuclear power: A constructionist approach.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5(1), 1-37.
- Ha, W. S. (2019). The effects of political ideology on policy support in deliberative polling: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the policy frame in the process of deliberative polling for 5th and 6th Shingori.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Haider-Markel, D. P., & Joslyn, M. R. (2001). Gun policy, opinion, tragedy, and blame attribution: The conditional influence of issue frames. *Journal of Politics*, 63(2), 520-543.
- Han, D., & Kim, H.-I. (2011). Risk and communication: Communication effects on social acceptance of nuclear power. *Crisisonomy*, 7(2), 1-22.
- Han, J. (2018). Semantic network analysis of news articles on Nos. 5 and 6 Shin-gori public deliberation : Focusing on hankyoreh and chosun-ilbo. *ECO*, 22(2), 145-175.
- Hwang, W.-D. (2013). A study on the influential factors contributing to social acceptance of nuclear energ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 Kahneman, D., & Tversky, A. (1979). Prospect theory: An analysis of decision under risk. *Econometrica: Journal of the Econometric Society*, 47(2), 263-291.
- Kahneman, D., & Tversky, A. (1984). Choices, values, and frames. *American Psychologist*, 39(4), 341-350.
- Kang, B. Y. (2018). A study of the effects of cancer related news frames on cognitive attitude, emotional attitude, and preventive behavioral intention: In application of construal level theory.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32(6), 5-59.
- Kang, Y. G. (2018). The influence of hostile media perception on political and social behavioral intention: Analyses of the mediating role of the third-person perception and the moderating role of political talk.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Kiene, S. M., Barta, W. D., Zelenski, J. M., & Cothran, D. L. (2005). Why are you bringing up condoms now? The effect of message content on framing effects of condom use messages. *Health Psychology*, 24(3), 321-326.
- Kim, D. J., Chung, B. H., & Chang, J. H. (2013). A comparative analysis of social and personal level acceptance of nuclear energy: Centered on implications for building public relations strategie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7(5), 214-238.
- Kim, H. J. (2017). The roles of prior attitudes and political tendency in selective exposure to nuclear energy

- information. *Journal of Public Relations*, 21(4), 56-78.
- Kim, H. J., & Kim, Y. W. (2013). The interaction effects of message framing, risk types and audience expertise on risk perception in risk communication: An analysis of radiation risks. *Journal of Public Relations*, 17(1), 143-183.
- Kim, I. S. (2012). The impact of risk perception of nuclear power, perception of knowledge, the use of communication channels, the third-person effect about nuclear accident on optimistic bias Fukushima nuclear accident.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12(3), 79-106.
- Kim, J. H., Kim, T. H., & Park, I. H. (2010). Effective persuasion message type depending on when people get the results of preventive behavior: Based on construal level theory. *The Korean Journal of Consumer and Advertising Psychology*, 11(3), 451-474.
- Kim, K. S., & Yun, S. J. (2010). A exploratory study on acceptability change of nuclear power as a responding solution to climate change as a result of framing effect and its policy implication.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and Administration*, 18(1), 91-129.
- Kim, M. H. (2011). The influence of construal level, message level and temporal distance on consumer's message attitude and purchase inten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S. Y., & Kim, G. S. (2014). After Fukushima: Exploring the attitude change and its determinants about acceptance of nuclear power.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tudies*, 23(3), 57-90.
- Kühberger, A. (1998). The influence of framing on risky decisions: A meta-analysi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75(1), 23-55.
- Lee, B.-K. (2011). The effects of mental simulation and temporal distance on product attitude and behavioral intention in comparative advertising. *The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22(2), 129-151.
- Lee, H., & Jeong, I. (2012). Difference in voting intention according to the level of interaction of a politician's twitter. *Journal of Political Communication*, 27, 261-299.
- Lee, Y. (2010). The effects of voter's political orientations and political involvement levels on political advertising evaluations: Role of regulatory-focus in processing messages in political advertisem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nkoo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eoul, Korea.
- Leeper, T. J., & Slothuus, R. (2018). How the News Media Persuades: Framing Effects and Beyond. In Bernard Grofman, Elizabeth Suhay, & Alexander Trechsel (Eds.), *the Oxford Handbook of Electoral Persuasion*.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Liberman, N., & Trope, Y. (1998). The role of feasibility and desirability considerations in near and distant future decisions: A test of temporal construal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1), 5-18.
- Liberman N., & Trope, Y. (2008). The psychology of transcending the here and now. *Science*, 322(5905), 1201-1205.
- Liberman, N., & Trope, Y. (2014). Traversing psychological distance.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18(7), 364-369.
- Liberman, N., Trope, Y., & Stephan, E. (2007). Psychological Distance. In Arie W. Kruglanski, & E. Tory Higgins (Eds.), *Social Psychology: Handbook of Basic Principles* (pp. 353-383).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Lim, S. J., Yoon, H. W., Yoon, Y. S., & Sohn, Y. W. (2009). Effective advertisement message based on the expected purchase time and product category: Focusing on construal level theory. *Korean Journal of Consumer and Advertising Psychology*, 10(2), 321-336.
- Liviatan, I., Trope, Y., & Liberman, N. (2008). Interpersonal similarity as a social distance dimension: Implications for perception of others' action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4(5), 1256-1269.
- MacGregor, D. G., Slovic, P., & Malmfors, T. (1999). "How exposed is exposed enough?" Lay inferences about chemical exposure. *Risk Analysis*, 19(4), 649-659.
- Nisbet, M. C., & Mooney, C. (2007). Framing Science. *Science*, 316(5821), 56-56.
- Park, C. H., & Hong, E. Y. (2017). The relationship between risk communication and nuclear risk avoidance behavior: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trust in government.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1(4), 291-322.
- Park, J. H., & Shin, J. H. (2010). Government trust, policy efficacy, and policy support: Residential area CCTV policy in Korea. *Korean Institute of Public Affairs*, 48(3), 1-24.
- Peoples, C. (2014). New nuclear, new security? Framing security in the policy case for new nuclear power in the United Kingdom. *Security Dialogue*, 45(2), 156-173.
- Perko, T., Van Gorp, B., Turcanu, C., Thijssen, P., & Carle, B. (2013). Communication in nuclear emergency preparedness: a closer look at information reception. *Risk Analysis*, 33(11), 1987-2001.
- Prezelj, I., Perko T., Cantone, M. C., Gallego, E., Tomkiv, Y., & Oughton, D. H. (2016). The limits of public communication coordination in a nuclear emergency: lessons from media reporting on the Fukushima

- case. *Journal of Radiological Protection*, 36(2), 45-63.
- Quick, B. L., & Bates, B. R. (2010). The use of gain-or loss-frame messages and efficacy appeals to dissuade excessive alcohol consumption among college students: A test of psychological reactance theory.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15(6), 603-628.
- Rabinovich, A., Morton, T., & Postmes, T. (2010). Time perspective and attitude-behaviour consistency in future-oriented behaviour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9(1), 69-89.
- Rivers, S. E., Salovey, P., Pizarro, D. A., Pizarro, J., & Schneider, T. R. (2005). Message framing and pap test utilization among women attending a community health clinic.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0(1), 65-77.
- Robberson, M. R., & Rogers, R. W. (1988). Beyond fear appeals: Negative and positive persuasive appeals to health and self-esteem.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8(3), 277-287.
- Scheufele, D. A., & Iyengar, S. (2016). The state of framing research: A call for new directions. In Kate Kenski & Kathleen Hall Jamieson (Eds.), *The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Communication* (pp. 619-632).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Scheufele, D. A., & Lewenstein, B. V. (2005). The public and nanotechnology: How citizens make sense of emerging technologies. *Journal of Nanoparticle Research*, 7(6), 659-667.
- Shen, L. (2015). Antecedents to psychological reactance: The impact of threat, message frame, and choice. *Health Communication*, 30(10), 975-985.
- Shim, J. S. (2015, August). A study of the effects of conflict frames on the nuclear acceptance. Paper presented at the summer conference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and Evaluation, Seoul.
- Shin, H., Keum, H., & Chung, S. (2012). The effects of gain and loss frames on individuals' perceptions of nuclear energy issues : Its interplay with individuals' value dispositions and materialism/post-materialism.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6(5), 190-215.
- Slovic, P. (1993). Perceived risk, trust, and democracy. *Risk analysis*, 13(6), 675-682.
- Song, I.-H., & Park, S.-Y. (2009). Advertisement effects of message framing and temporal frame. *Journal of Institute for Social Sciences*, 20(3), 129-150.
- Trope, Y., & Liberman, N. (2000). Temporal construal and time-dependent changes in prefer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6), 876-889.
- Trope, Y., & Liberman, N. (2003). Temporal construal. *Psychological review*, 110(3), 403-421.

- Trope, Y., & Liberman, N. (2010). Construal-level theory of psychological distance. *Psychological review*, 117(2), 440-463.
- Trope, Y., Liberman, N., & Wakslak, C. (2007). Construal levels and psychological distance: Effects on representation, prediction, evaluation, and behavior.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17(2), 83-95.
- Tversky, A., & Kahneman, D. (1981). The framing of decisions and the psychology of choice. *Science*, 211(4481), 453-458.
- Tversky, A., & Kahneman, D. (1992). Advances in prospect theory: cumulative representation of uncertainty. *Journal of Risk and Uncertainty*, 5(4), 297-323.
- Vallacher, R. R., & Wegner, D. M. (1987) What do people think they're doing? Action identification and human behavior. *Psychological review*, 94(1), 3-15.
- Wakslak, C. J., Trope, Y., Liberman, N., & Alony, R. (2006). Seeing the forest when entry is unlikely: probability and the mental representation of event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35(4), 641-653.
- Yoon, S. J., & Kim, M. Y. (2018). A study on the construal level and intention of autonomous driving taxi according to message framing. *Journal of Intelligence and Information Systems*, 24(3), 135-155.
- Yoon, S. W., Ryu, J. S., & Kim, Y. J. (2017, November). Policy decision and its impact on German nuclear phase-out. Paper presented at the fall conference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Jeju.

최초 투고일 2020년 2월 7일
 게재 확정일 2020년 3월 30일
 논문 수정일 2020년 3월 31일

부록 I - 국내 참고문헌

- 강보영 (2018). 〈암 관련 뉴스프레임이 인지적, 정서적 태도와 예방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해석수준이론 적용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박사학위 논문.
- 강연곤 (2018). 〈적대적 매체 지각이 정치사회적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 제3자 효과 지각의 매개 효과 및 정치 대화의 조절효과 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신문방송전공 박사학위 논문.
- 김경신·윤순진 (2010). 틀짓기 효과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책으로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수용도 변화와 정책적 함의에 대한 탐색적 연구. 〈환경정책〉, 18권 1호, 91-129.
- 김대중·정봉훈·장정현 (2013). 인지 및 감정 요인이 원자력발전의 개인적·사회적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력차이에 관한 비교 연구: 원전 홍보 방안 수립에 주는 시사점 탐색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7권 5호, 214-238.
- 김민혜 (2011). 〈해석수준, 메시지수준 및 시간적 거리가 메시지에 대한 태도와 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 김서용·김근식 (2014).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계인의 원자력 수용성 태도변화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23권 3호, 57-90.
- 김인숙 (2012).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과 지각된 지식,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이용, 제3자 효과가 낙관적편견에 미치는 영향 -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2권 3호, 79-106.
- 김재휘·김태훈·박인희 (2010). 예방행동의 결과를 얻는 시점에 따른 효과적인 설득 메시지 유형: 해석수준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11권 3호, 451-474.
- 김효정 (2017). 원자력 발전에 대한 수용자의 기존 태도와 정치적 성향이 원자력 에너지 기사 선택에 미치는 영향: 선택적 노출 이론을 중심으로. 〈홍보학연구〉, 21권 4호, 56-78.
- 김효진·김영욱 (2013). 위험커뮤니케이션의 위험 인식에서 메시지 프레임, 수용자의 전문성, 위험 유형의 상호작용 효과 - 방사선 위험을 중심으로 한 분석. 〈홍보학연구〉, 17권 1호, 143-183.
- 박정훈·신정희 (2010). 정부신뢰, 정책효능성, 정책지지간의 연관성 실증연구: 주거지역내 CCTV 설치정책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48권 3호, 1-24.
- 박천희·홍은영 (2017). 위험커뮤니케이션과 원자력 위험회피행동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정부신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1권 4호, 291-322.
- 부수현 (2013). 〈시간적 거리와 미래결과의 유인가가 예방행동의도에 미치는 효과: 시간해석 수준과

- 메시지 구성 간 적합성의 설득적 영향력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소비자 및 광고 심리학전공 박사학위 논문.
- 송인학·박세영 (2009). 메시지의 긍정·부정 프레이밍과 시간 프레임에 따른 광고 효과. <사회과학 연구>, 20권 3호, 129-150.
- 신해정·금희조·정성은 (2012). 원자력 에너지 이슈의 이득-손실 틀 짓기 효과: 개인의 물질 / 탈물질주의적 가치 성향과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6권 5호, 190-215.
- 심준섭 (2015, 8월). <갈등 프레임이 원자력의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하계학술대회. 서울.
- 엄현식 (2018). <메시지 프레임이 신문기사의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언론사와 수용자의 정치성향 일치도를 고려하여>.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석사학위 논문.
- 윤성원·류재수·김연중 (2017, 11월). <독일의 탈원전 정책결정과 영향>.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 제주.
- 윤승정·김민용 (2018). 해석수준과 메시지 프레이밍에 따른 자율주행택시의 사용의도에 관한 연구. <지능정보연구>, 24권 3호, 135-155.
- 이병관 (2011). 소비자의 정신적 조작과 시간적 거리감이 비교 광고에서 제품태도와 행동의도에 미치는 효과 연구. <광고학연구>, 22권 2호, 129-151.
- 이영화 (2010). <조절초점에 따른 메시지 프레이밍이 정치광고에 대한 태도 형성에 미치는 효과 - 유권자의 이념성향과 정치 관여도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박사학위 논문.
- 이현지·정일권 (2012). 정치인의 트위터 메시지와 상호작용 유형에 따른 유권자 투표의도에 미치는 영향.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27권, 261-299.
- 임성준·윤혜원·윤용식·손영우 (2009). 제품 구매 예상 시점과 제품군 분류에 따른 효과적인 광고 메시지: 시기추론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10권 2호, 321-336.
- 조성경 (2012). <에너지믹스 이해관계자의 스키마 유형 연구: 원자력 위험인식과 커뮤니케이션>. 고려대학교 대학원 언론학과 박사학위 논문.
- 최영재 (2018). 소셜미디어의 정치참여 효과에 관한 연구 - 조절변인의 탐색-.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49권, 179-214.
- 하원석 (2019). <공론조사 과정에서 정치이념이 정책지지수준에 미치는 영향: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과정에서 정책프레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석사학위 논문.

- 한동섭·김형일 (2011). 위험과 커뮤니케이션: 원자력의 사회적 수용에 미치는 커뮤니케이션의 효과 - 신뢰성, 효용인식, 위험인식을 매개로-. <Crisisonomy>, 7권 2호, 1-22.
- 한준 (2018).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언론보도에 대한 언어 네트워크 분석: 한겨레,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환경사회학연구 ECO>, 22권 2호, 145-175.
- 황원동 (2013). <원자력의 사회적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 논문.

부록II-1

온라인 설문지

원전정책 전환 관련 정책홍보 프레이밍이 정책지지도에 미치는 영향

〈I〉 실험 처치 전 설문

1. 수용자 인지 욕구

다음은 귀하의 평소 성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기하여 주십시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에 관심이 있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깊이 생각해야 하는 상황을 오히려 선호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사고력이 필요한 일을 좋아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많은 정신적 노력을 해야 하는 일을 처리하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나는 많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일을 하는 게 더 낫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에너지전환 정책 사전지식

다음은 귀하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사전지식(관심)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기하여 주십시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관련된 이슈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주변 사람들과 에너지전환 정책에 관련된 이슈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고민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관련된 뉴스 보도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나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한국인들에게 의미하는 바를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나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려는 이유에 대해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정치적 성향

다음은 귀하의 정치적 성향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표기하여 주십시오.

귀하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정치적 성향이 어느 쪽에 가깝다고 여기십니까?

‘보수’

‘진보’

①-----②-----③-----④-----⑤-----⑥-----⑦

※이제 제시될 카드뉴스 형태의 원전정책 관련 정책홍보물을 자세히 읽고 내용을 숙지 한 다음, 홍보 내용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답해주시면 됩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p> <p>“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시대를 열어갑시다”</p> <p>-원전은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해야 하는 우리가 개발도상국가 시기에 선택한 에너지 정책이었으나 이제는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p> <p>-원전을 줄여가면서 이를 대체할 신재생 에너지를 제 때에 값싸게 생산해야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p> <p>‘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하여’</p> <p>-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환경을 중시하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정책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p> <p>-정책 전환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와 열엔지(LNG) 발전, 태양광, 풍력 등을 활용한 선진국형 미래 청정 에너지를 새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p>  <p>-고리 1호기를 비롯해 12기의 원전을 설계수명에 따라 순차적으로 가동 중지해 2030년까지 총발전량 중 원전 비중을 18%로 줄이겠습니다.</p> <p>-청정에너지를 적극 육성해 열엔지 비중을 현재 약 20%에서 37%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5%에서 2030년 20%로 끌어올리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p> <p>-고리 1호기의 가동 영구정지(2017년 6월 19일)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의결(2018년 6월 18일)을 통해 탈핵 국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향해 출발했습니다.</p> <p>-탈핵의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면 탈핵 시기도 가능한 앞당기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p> 

〈III〉 실험 처치후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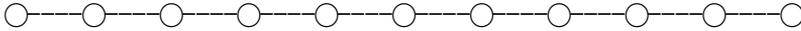
1. 제시된 원전정책 홍보물 내용에 대한 평가

※다음은 제시되었던 원전정책 홍보물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의하는 정도에 표시하십시오.

(1) 위 정책홍보물은 원전정책에 관해서 어떤 시간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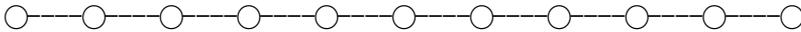
위 내용은 '가까운 시간' 내에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위 내용은 '먼 시간' 이후에
발생할 문제를 다루고 있다



위 내용은 원전정책 전환이 '가까운 시간' 내에
진행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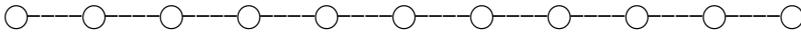
위 내용은 원전정책 전환이 '먼 시간'에 걸쳐
진행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 위 정책홍보물은 원전정책 전환의 당위성을 어떤 관점에서 제시하며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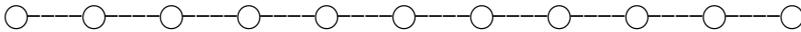
미래지향적인 긍정적 표현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실비판적인 부정적 표현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책전환에 따른 긍정적 이점을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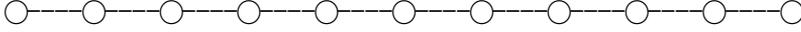
정책전환하지 않음에 따른
부정적 손실을 강조하고 있다.



(3) 위 정책홍보물은 원전정책 전환에 대한 설명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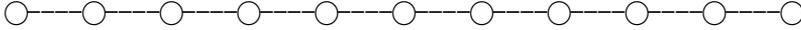
'어떻게' 해야하는 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왜' 해야하는 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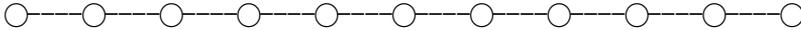
원전정책 전환과 관련, 구체적 실천방법과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원인과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추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 상황적 관여

다음은 제시되었던 '에너지전환 정책' 홍보 메시지를 읽고 난 후, 귀하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기하여 주십시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이 정책홍보 메시지는 나와 관계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이 정책홍보 메시지는 나에게 의미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이 정책홍보 메시지는 나에게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이 정책홍보 메시지의 내용을 주의 깊게 보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원전정책 전환에 대한 이득/위험인식

다음은 제시되었던 원전정책 관련 정부 정책홍보물을 읽고 난 후, 정책홍보물 내용에 대한 귀하의 이득/위험인식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기하여 주십시오.

(1) 에너지전환 정책은 신재생 에너지와 태양광, 풍력 등을 활용하기 때문에 환경적인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약간 동의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에너지전환 정책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처럼 재앙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원전을 없애나가는 것이어서 안전상의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약간 동의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원전정책 전환에 대한 지지

다음은 제시되었던 원전정책 관련 정부 정책홍보물을 읽고 난 후, 정책홍보물 내용에 대한 귀하의 지지 태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기하여 주십시오.

(1) 귀하는 위 정책홍보물 내용을 얼마나 지지하십니까?

매우 지지하지 않는다	지지하지 않는다	약간 지지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약간 지지한다	지지한다	매우 지지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귀하는 위 정책홍보물 내용에 얼마나 찬성 혹은 반대 하십니까?

매우 반대한다	반대한다	약간 반대한다	그저 그렇다	약간 찬성한다	찬성한다	매우 찬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귀하는 위 정책홍보물 내용이 얼마나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약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저 그렇다	약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신상정보

※ 마지막으로 귀하의 신상정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정보는 연구 목적으로만 쓰이기 때문에 외부에 절대 공개되지 않습니다.)

(1)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

- ① 중졸이하 ② 고졸 ③ 대학재학/대학생 ④ 대학졸업이상

(2) 귀하의 성별은? (남/ 여)

(3) 귀하의 출생년도는? ()

(4) 당신이 거주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시) (구) (동)

(5) 가족 전체의 매월 평균 수입은? ()

- ① 0~199만원이하 ② 200~299만원 ③ 300~399만원 ④ 400~499만원
⑤ 500~599만원 ⑥ 600~699만원 ⑦ 700~799만원 ⑧ 800만원 이상

(5) 귀하의 직업은? ()

- | | | | |
|----------|-------------|--------|----------|
| ① 사무직 | ② 기술직 | ③ 서비스직 | ④ 영업/판매직 |
| ⑤ 경영/관리직 | ⑥ 전문직 | ⑦ 노무직 | ⑧ 자영업 |
| ⑨ 대학(원)생 | ⑩ 농업/어업/축산업 | ⑪ 전업주부 | ⑫ 무직 |
| ⑬ 기타 직 | | | |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II-2 실험처치물 8개

1. 긍정 How 가까운 거리

<p>—</p> <p>“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시대를 열어갑시다”</p> <p>-원전은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해야 하는 우리가 개발도상국가 시기에 선택한 에너지 정책이었으나 이제는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p> <p>-원전을 줄여가면서 이를 대체할 신재생 에너지를 제 때에 값싸게 생산해야 합니다.</p>	<p>—</p> <p>‘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하여’</p> <p>-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환경을 중시하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정책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p> <p>-정책 전환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와 열엔지(LNG) 발전, 태양광, 풍력 등을 활용한 선진국형 미래 정정에너지를 새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p> 
<p>—</p>  <p>-고리 1호기를 비롯해 12기의 원전을 설계수명에 따라 순차적으로 가동 중지해 2030년까지 총발전량 중 원전 비중을 18%로 줄이겠습니다.</p> <p>-정정에너지를 적극 육성해 열엔지 비중을 현재 약 20%에서 37%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5%에서 2030년 20%로 끌어올리겠습니다.</p>	<p>—</p> <p>-고리 1호기의 가동 영구정지(2017년 6월 19일)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의결(2018년 6월 18일)을 통해 탈핵 국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향해 출발했습니다.</p> <p>-탈핵의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면 탈핵 시기도 가능한 앞당기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p> 

2. 긍정_How_먼 거리

<p>—</p> <p>“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시대를 열어갑시다”</p> <p>-원전은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해야 하는 우리가 개발도상국가 시기에 선택한 에너지 정책이었으나 이제는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원전을 줄여가면서 이를 대체할 신재생 에너지를 제 때에 값싸게 생산해야 합니다.</p>	<p>—</p> <p>‘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하여’</p> <p>-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환경을 중시하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정책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정책 전환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와 엘엔지(LNG) 발전, 태양광, 풍력 등을 활용한 선진국형 미래 청정에너지를 새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p> 
<p>—</p>  <p>-고리 1호기를 비롯해 12기의 원전을 설계수명에 따라 순차적으로 가동 중지해 2030년까지 총발전량 중 원전 비중을 18%로 줄이겠습니다. -청정에너지를 적극 육성해 엘엔지 비중을 현재 약 20%에서 37%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5%에서 2030년 20%로 끌어올리겠습니다.</p>	<p>—</p> <p>-정부 탈원전 정책이 실현된다 해도 원전이 모두 가동을 중단하는 것은 2075년 이후의 일입니다. -원전 안전기준도 대폭 강화하려는 것은 지금 탈원전을 시작하더라도 가동 중인 원전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는 앞으로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p> 

3. 긍정_Why_가까운 거리

<p>—</p> <p>“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시대를 열어갑시다”</p> <p>-원전은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해야 하는 우리가 개발도상국가 시기에 선택한 에너지 정책이었으나 이제는 바꿀 때가 됐습니다.</p> <p>-원전을 줄여가면서 이를 대체할 신재생 에너지를 제 때에 값싸게 생산해야 합니다.</p>	<p>—</p> <p>‘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하여’</p> <p>-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환경을 중시하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정책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p> <p>-정책 전환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와 엘엔지(LNG) 발전, 태양광, 풍력 등을 활용한 선진국형 미래 청정에너지를 새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p> 
<p>—</p>  <p>-원전 정책은 과학, 공학기술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가치와 윤리, 그리고 환경 및 지역의 문제라는 시각에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p> <p>-에너지 정책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제거하려는 것은 지속가능한 환경,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p>	<p>—</p> <p>-고리 1호기의 가동 영구정지(2017년 6월 19일)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의결(2018년 6월 18일)을 통해 탈핵 국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향해 출발했습니다.</p> <p>-탈핵의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면 탈핵 시기도 가능한 앞당기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p> 

4. 긍정 Why_먼 거리

<p>—</p> <p>“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시대를 열어갑시다”</p> <p>-원전은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해야 하는 우리가 개발도상국가 시기에 선택한 에너지 정책이었으나 이제는 바꿀 때가 됐습니다.</p> <p>-원전을 줄여가면서 이를 대체할 신재생 에너지를 제 때에 값싸게 생산해야 합니다.</p>	<p>—</p> <p>‘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하여’</p> <p>-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환경을 중시하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정책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p> <p>-정책 전환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와 엘엔지(LNG) 발전, 태양광, 풍력 등을 활용한 선진국형 미래 청정에너지를 새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p> 
<p>—</p>  <p>-원전 정책은 과학, 공학기술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가치와 윤리, 그리고 환경 및 지역의 문제라는 시각에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p> <p>-에너지 정책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제거하려는 것은 지속가능한 환경,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p>	<p>—</p> <p>-정부 탈원전 정책이 실현된다 해도 원전이 모두 가동을 중단하는 것은 2075년 이후의 일입니다.</p> <p>-원전 안전기준도 대폭 강화하려는 것은 지금 탈원전을 시작하더라도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는 앞으로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p> 

5. 부정_How_가까운 거리

<p>“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시대를 열어갑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전은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해야 하는 우리가 개발도상국가 시기에 선택한 에너지 정책이었으나 이제는 바꿀 때가 됐습니다. -원전을 줄여가면서 이를 대체할 신재생 에너지를 제 때에 값싸게 생산해야 합니다. 	<p>‘탈원전 정책에 대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자력 발전에 완벽한 안전성이란 없으며 우리나라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후쿠시마 사태보다 더 참혹할 수 있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치명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금지하는 것은 원전이 위험하고 반환경적이기 때문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리 1호기를 비롯해 12기의 원전을 설계수명에 따라 순차적으로 가동 중지해 2030년까지 총발전량 중 원전 비중을 18%로 줄이겠습니다. -청정에너지를 적극 육성해 열엔지 비중을 현재 약 20%에서 37%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5%에서 2030년 20%로 끌어올리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리 1호기의 가동 영구정지(2017년 6월 19일)와 결성 1호기 조기폐쇄 의결(2018년 6월 18일)을 통해 탈핵 국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탈핵의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면 탈핵 시기도 가능한 앞당기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6. 부정_How_먼 거리

<p>—</p> <p>“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시대를 열어갑시다”</p> <p>-원전은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해야 하는 우리가 개발도상국가 시기에 선택한 에너지 정책이었으나 이제는 바꿀 때가 됐습니다.</p> <p>-원전을 줄여가면서 이를 대체할 신재생 에너지를 제 때에 값싸게 생산해야 합니다.</p>	<p>—</p> <p>‘탈원전 정책에 대하여’</p> <p>-원자력 발전에 완벽한 안전성이란 없으며 우리나라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후쿠시마 사태보다 더 참혹할 수 있습니다.</p> <p>-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치명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금지하는 것은 원전이 위험하고 반환경적이기 때문입니다.</p> 
<p>—</p>  <p>-고리 1호기를 비롯해 12기의 원전을 설계수명에 따라 순차적으로 가동 중지해 2030년까지 총발전량 중 원전 비중을 18%로 줄이겠습니다.</p> <p>-청정에너지를 적극 육성해 열엔지 비중을 현재 약 20%에서 37%,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5%에서 2030년 20%로 끌어올리겠습니다.</p>	<p>—</p> <p>-정부 탈원전 정책이 실현된다 해도 원전이 모두 가동을 중단하는 것은 2075년 이후의 일입니다.</p> <p>-원전 안전기준도 대폭 강화하려는 것은 지금 탈원전을 시작하더라도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는 앞으로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p> 

7. 부정_Why_가까운 거리

<p>—</p> <p>“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시대를 열어갑시다”</p> <p>-원전은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해야 하는 우리가 개발도상국가 시기에 선택한 에너지 정책이었으나 이제는 바꿀 때가 됐습니다.</p> <p>-원전을 줄여가면서 이를 대체할 신재생 에너지를 제 때에 값싸게 생산해야 합니다.</p>	<p>—</p> <p>‘탈원전 정책에 대하여’</p> <p>-원자력 발전에 완벽한 안전성이란 없으며 우리나라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후쿠시마 사태보다 더 참혹할 수 있습니다.</p> <p>-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치명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금지하는 것은 원전이 위험하고 반환경적이기 때문입니다.</p> 
<p>—</p>  <p>-원전 정책은 과학, 공학기술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가치와 윤리, 그리고 환경 및 지역의 문제라는 시각에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p> <p>-에너지 정책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제거하려는 것은 지속가능한 환경,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p>	<p>—</p> <p>-고리 1호기의 가동 영구정지(2017년 6월 19일)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의결(2018년 6월 18일)을 통해 탈핵 국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향해 출발했습니다.</p> <p>-탈핵의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면 탈핵 시기도 가능한 앞당기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p> 

8. 부정 Why 먼 거리

<p>—</p> <p>“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시대를 열어갑시다”</p> <p>-원전은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해야 하는 우리가 개발도상국가 시기에 선택한 에너지 정책이었으나 이제는 바꿀 때가 됐습니다.</p> <p>-원전을 줄여가면서 이를 대체할 신재생 에너지를 제 때에 값싸게 생산해야 합니다.</p>	<p>—</p> <p>‘탈원전 정책에 대하여’</p> <p>-원자력 발전에 완벽한 안전성이란 없으며 우리나라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후쿠시마 사태보다 더 참혹할 수 있습니다.</p> <p>-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치명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금지하는 것은 원전이 위험하고 반환경적이기 때문입니다.</p> 
<p>—</p>  <p>-원전 정책은 과학, 공학기술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가치와 윤리, 그리고 환경 및 지역의 문제라는 시각에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p> <p>-에너지 정책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제거하려는 것은 지속가능한 환경,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p>	<p>—</p> <p>-정부 탈원전 정책이 실현된다 해도 원전이 모두 가동을 중단하는 것은 2075년 이후의 일입니다.</p> <p>-원전 안전기준도 대폭 강화하려는 것은 지금 탈원전을 시작하더라도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는 앞으로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p> 

부록Ⅲ - 종속변인과 통제변인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표 1〉 이득위험인식과 정책 지지도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결과

문항	성분		Cronbach's α
	요인 1	요인 2	
	이득위험인식	정책 지지도	
Q9-3. 귀하는 위 정책홍보물 내용이 얼마나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68	.867	.820
Q9-2. 귀하는 위 정책홍보물 내용에 얼마나 찬성 혹은 반대 하십니까?	.437	.853	
Q9-1. 귀하는 위 정책홍보물 내용을 얼마나 지지하십니까?	.447	.842	
Q8-1. 신재생 에너지와 태양광, 풍력 등을 활용하기 때문에 환경적인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다	.884	.354	.948
Q8-2. 에너지전환 정책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처럼 재앙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원전을 없애나가는 것이어서 안전상의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다	.733	.515	
전체	1.884	2.578	
분산(%)	36.881	51.562	
누적(%)	36.881	88.443	

KMO : .889, Bartlett 구형성: 5211.410***

*** $p < .001$.

〈표 2〉 평소성향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문항번호	요인값	항목 제거시 Cronbach's α	Cronbach's α
Q1-1. [평소 성향]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에 관심이 있는 편이다	.685	.910	.905
Q1-2. [평소 성향] 나는 깊이 생각해야 하는 상황을 오히려 선호한다	.844	.884	
Q1-3. [평소 성향]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817	.889	
Q1-4. [평소 성향] 나는 사고력이 필요한 일을 좋아하는 편이다	.891	.875	
Q1-5. [평소 성향] 많은 정신적 노력을 해야 하는 일을 처리하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	.848	.883	
Q1-6. [평소 성향] 나는 많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일을 하는 게 더 낫다	.849	.883	

KMO : .895, Bartlett 구형성: 4146.665***

*** $p < .001$.

〈표 3〉 사전지식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문항번호	요인값	항목 제거시 Cronbach's α	Cronbach's α
Q2-1.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사전지식] 나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관련된 이슈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863	.935	.943
Q2-2.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사전지식] 나는 주변사람들과 에너지전환 정책에 관련된 이슈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고민하는 편이다	.854	.937	
Q2-3.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사전지식] 나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891	.931	
Q2-4.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사전지식] 나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관련된 뉴스보도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919	.926	
Q2-5.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사전지식] 나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한국인들에게 의미하는 바를 잘 알고 있다	.897	.930	
Q2-6.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사전지식] 나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려는 이유에 대해 잘 알고 있다	.869	.934	

KMO : .859, Bartlett 구형성: 3332.921***

*** $p < .001$.

〈표 4〉 관여도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문항번호	요인값	항목 제거시 Cronbach's α	Cronbach's α
Q7-1. [에너지전환 정책 홍보 메시지 의견] 이 정책홍보 메시지는 나와 관계가 있다	.849	.908	.912
Q7-2. [에너지전환 정책 홍보 메시지 의견] 이 정책홍보 메시지는 나에게 의미가 있다	.923	.868	
Q7-3. [에너지전환 정책 홍보 메시지 의견] 이 정책홍보 메시지는 나에게 중요하다	.924	.866	
Q7-4. [에너지전환정책홍보메시지의의견] 나는 이 정책홍보 메시지의 내용을 주의깊게 보게된다	.865	.901	

KMO : .838, Bartlett 구형성: 3209.639***

*** $p < .001$.

에너지전환 정책 홍보 메시지 프레이밍이 정책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프레이밍과 해석수준의 상호 적합성 탐색을 중심으로

고태성

(성균관대학교 미디어문화융합대학원 강사)

강보영

(성균관대학교 미디어문화융합대학원 겸임교수)

권상희

(성균관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과 교수)

본 연구는 탈원전이 핵심인 에너지전환 정책의 홍보 메시지를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한결 강한 수용자 효과를 불러오는지 분석한 탐색적 시도이다. 메시지 구성의 요소로서 우선 전망이론(Prospect theory)에 따른 긍정 / 부정 프레이밍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이와 함께 해석수준이론이 제시한 하위 / 상위 해석수준 특성 가운데 어떻게(how) / 왜(why) 요인, 가까운 / 먼 시간적 거리감 요인을 메시지 구성요소에 포함해 이 또한 각각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정책이 가져올 이득에 초점을 맞춘 이득위험인식과 정책에 대한 지지도를 종속 변인으로 제시했다. 수용자의 정치적인 보수 / 진보 성향을 조절 변인으로 설정했다. 3개 쌍의 독립변인들이 나타내는 주효과와 이원 및 삼원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연구가설 3개와 연구문제 5개를 제시하고 $2 \times 2 \times 2$ 요인 실험설계를 하였다. 실험결과를 살펴보면 긍정 / 부정 프레이밍, 어떻게(how) / 왜(why) 해석수준, 가까운 / 먼 시간적 거리감의 주효과가 모두 유의미했다. 구체적으로 긍정 프레이밍이 부정 프레이밍보다 더 강한 호의적 반응을 이끌 것이라는 가설은 뒷받침됐다. 전통적 전망이론은 불확실한 잠재적 위험과 관련된 선택에서는 부정 프레이밍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았으나 이후 위험의 정도나 유형, 손실 개연성의 정도가 낮아지면 긍정 프레이밍의 영향력이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다는 방향으로 이론적 발전을 이뤘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전환 정책의 위험성이 원전 유지 정책보다 작다고 보고 제시한 가설이 뒷받침됐다. 해석수준 특성에서는 어떻게 요인이 왜 요인보다, 가까운 시간적 거리감이 먼 시간적 거리감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독립변인들 사이의 이원 상호작용으로는 긍정 프레이밍과 어떻게(how) 요인, 긍정 프레이밍과 가까운 시간적 거리감이 각각 조합을 이룰 때 상대적으로 한층 강한 메시지 효과를 나타냈다. 특기할 것은 전통적인 해석수준이론에 근거해 설정한 가설에 어긋나게 해석수준 특성이 다른 어떻게(how) 요인과 먼 시간적 거리감 조합의 상호작용 효과가 가장 컸다는 점이다. 이는 에너지전환 정책의 기본적 속성, 즉 과학기술 영역에 속하고 미래지향적이며 미래 가치가 더 중시되는 특성 때문이라고 해석되며 보다 정교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삼원 상호작용에서는 긍정 프레이밍, 어떻게(how) 요인, 먼 시간적 거리감의 조합이 가장 호의적 반응을 불러왔다. 정치적 성향과 관련, 진보적일수록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은 제한적으로만 뒷받침돼 피상적인 느낌보다는 정치적 성향의 조절 효과가 크지 않았다.

핵심어: 에너지전환 정책, 긍정 / 부정 프레이밍, 어떻게 / 왜 해석수준, 시간적 거리감, 정책 지지